

New 뉴 비 전 교 회 계 간 지 ision 통권 252호 **2024** 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시작된지 43주년을 맞는 2024년입니다. 이제는 어느 때보다 주의 복음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2024년 한 해에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 기도하며 기도가 살아있는 신앙과 교회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힘쓴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14)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는 성령강림과 복음전파, 그리고 교회부흥과 하나님나라 확장이 기도로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God's Work)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순종의 첫 발걸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알고, 주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약속해 주신 성령이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충만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 가운데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힘씁시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줄입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 마음을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되게 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히 기도하는 교회는 일사천리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되기에 주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대(Kairos)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시간 (Kairos)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실천이 기도입니다. 올 한해 가운데 주께서 보여주실 새 역사를 기대해 봅시다. 기도하는 신앙으로 주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더욱 깊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당신의 사랑과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실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부흥을 기대하는 종 **이진수** 올림

2024 ㉔

통권 252호

하나님의사람들을세워세상을변화시키는교회
Building God's People to Transform the World

발행인 | 이진수

지도목사 | 강석운

출판임원 | 김영미

편집장 | 배난모

편집팀 | 이영숙, 윤미영, 최희주, 유숙진,

유정란, 이명아, 서희재, 최이정,

정찬미

디자인팀 | 류양희

발행한 곳 | 뉴비전교회

New Vision Church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www.newvisionchurch.org

New Vision은 뉴비전교회에서 일년에 두 번 출간 되는 잡지로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목적으로 만들 어집니다. 가정, 교회, 사회에서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쓰셔서 출판팀 메일(chupan@newvisionchurch.org)로 제출하시면 선별하여 신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교회내에서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 이는 분이나, 좋은 모임, 또는 알고싶은 사역에 대 한 취재를 요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본서의 글, 사진, 그림은 뉴비전교회의 소유이며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 Vision Church 2024
All rights reserved.

ON THE COVER

[사진 | 정유창]



Contents

2	담임 목사 칼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진수 담임목사
3	목차		
4	신임사역원장소감문	전도 사역원	홍창균
5		미디어 사역원	김종식
6		교육 사역원	스티븐 신
7	교회 소식	가족 수련회Family Retreat	조남필
8			박기찬
9	선교	타지키스탄 단기선교	유지민
11		케냐 단기 선교	한경미
13			국은희
16		튀르키예 단기선교	이신영
17			김지은
19			하만수
21			김효선
22			정진기
25		쿠르디스탄 단기선교	강석운
27			김애경
30			김은신
32			김윤범
34			홍선영
37	뉴비전 성경학교 1단계	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고현재
38		무한한 감사	문창숙
39	뉴비전 성경학교 2단계	소명의 삶	김유미
40		답과 방향을 찾게 된 클래스	박현정
42	뉴비전 성경학교 3단계	섬기고 헌신하는 삶	김주영
43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임
45	향수 말씀카페	예수님 닮은 삶	백유니
48	향수 마더와이즈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행	성언정
50		전도서와의 동행	권정화
51		동행은 나의 길잡이	김정애
52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유정란
53		주님과 동행하며 협력하여 이뤄내는 선함	한여정
54		나눔의 삶을 통한 기쁨	김미경
55		허락하신 인생과 오늘의 때를 감사하며	윤미영
56		하나님이 주신 '때' 의 소중함!	정명분
57		세월의 흐름에 따른 깨달음	안은주

Contents

58	향수 마더와이즈 자유	설렘으로 만나는 향수	김은유
59		주님의 큰 그림	박수진
61		자유라는 은혜	손주영
62		하나님의 인도로 얻은 소중한 시간	이지혜
64	향수 마더와이즈 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이주현
66		다시 태어난 생일	이채은
67	향수 마더와이즈 회복	예수님의 영원한 헵시바	조순임
69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길	전지영
70	향수 말씀카페 기쁨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강청금
73	향수 말씀카페 은유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곽지혜
75	향수 말씀카페 인내	복음으로 주신 선물의 삶	박민주
77	향수 말씀카페 충성	‘와서 보라’ 외침의 준비	강미미
79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애란
81	향수 청소년 자녀교육	사추기와 사춘기의 행복한 동거법	이재자
83	향수 북카페	질문해도 된다구요?	정신애
86	전도폭발	전도폭발 1단계 훈련을 마치고	김윤범
88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고	이미숙
89	스페인어 전도훈련	1기 스페인어 전도훈련을 마치고	황애자
91	가정사역 증보기도	영혼의 호흡	정종규
92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원은경
94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손명화
96	간증	침례 간증문	이도규
97			이규원
98			김윤형
99			박상철
101	교회행사	Love Milpitas 2023	주진호
102			강신웅
106			구자익
110	인터뷰 / 뉴비전사		배난모
113	영화로 만나는 아름다운 교전 (24)	오셀로 Otello	안재규
115	설교 토크아보기		
116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LIVE! 2024 사역박람회		

신임 사역원장 소감문

전도 사역원

글 | 홍창균



신임사역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부담감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역원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선뜻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에 이 직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직분이 단지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김성호 목사님의 축복기도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새가족실을 방문하시는 초신자와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중보기도팀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마음이 든든해지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전도 및 전도폭발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만날 훈련과 준비를 하고, 그 분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매주 최선을 다하시는 전도 사역원 임원들, 팀장님들 및 팀원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그 분들의 헌신 또한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사역원장으로서 봉사하시는 분들 뒤에서 돕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신경쓰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간 제가 참여한 사역과는 거리가 있는 전도사역원으로 저를 보내 주셨습니다. 전도사역원으로 보내주신 그 이유를 보여주시고 전도사역원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미디어 사역원

글 | 김종식



은혜, 은혜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처음엔 안수집사의 직분과 사역원장의 직임을 허락하신 주님의 계획에 책임이 따르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나에게 맡겨진 일들, 뉴비전 성경학교 교사와 목자에만 충실히 사역하면서 행정적이거나 사역 리더십에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아서 더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고 충성되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고 더욱이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임원진들과 팀장들 그리고 팀원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이 일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보다는 오히려 점점 힘이 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역에 주님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이 펼쳐 가실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기대되고 감사하다.

미지의 미디어 사역, 그것은 지금과 다가오는 미래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사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발길은 닿지 못하나 인터넷이 되는 이 땅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디어 사역이라는 생각이다. 당연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니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연구하고 기도하여 그분의 뜻을 찾아가며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교회와 이웃에게 더 나아가 열방에 전하는 미디어 사역을 기대해 본다. 축복의 통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할렐루야!!!

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순종하며, 맡은 자에게는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걸겠다.



신임 사역원장 소감문

교육 사역원

글 | 스티븐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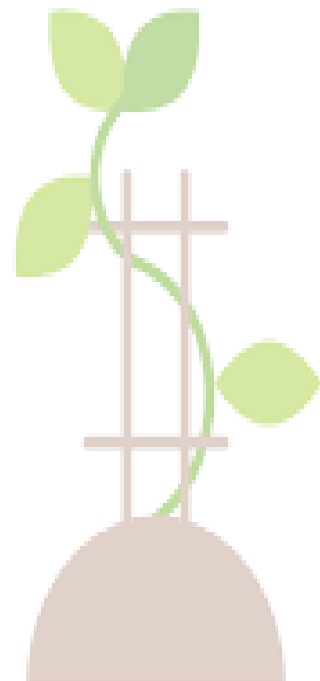


Hello, I am Steve Shin, newly appointed as the Director of the Education Ministry.

I was pleasantly surprised when I was approached to serve in this role. While I expected challenges, these past months have revealed to me the honor it is to serve as a Ministry Director. Witnessing the dedication and passion of those involved in various ministries as they organize and facilitate opportunities for spiritual growth within our church community has been truly inspiring.

It is wonderful to know that we are not alone in our worship and service to the Lord. Instead, God has united all of us together to grow a community dedicated to honoring Him.

Although I anticipate the next three years will present challenging tasks, I find encouragement in the support of my team and fellow ministry members, whom I deeply respect and look to for spiritual guidance. Additionally, the words of James resonate with me: "But let patience and endurance have its perfect work, that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in nothing." Being part of New Vision Church is certainly a privilege where I can joyfully endure and know that I will be mature and lacking in nothing. I look forward to my new role with prayer and thanksgiving.



가족 수련회 Family Retreat

글 | 조남필



첫날 저녁 Matthew Lea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작년 Youth Winter Retreat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2022년에도 Youth Winter Retreat에 참여는 했지만 단지 밤에 Youth아이들이 각자의 숙소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지내나 하는 Chaperone의 역할만 하고 돌아왔기에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Family Retreat은 완전히 달랐다. 윤주성

목사님도 첫날 어른들 저녁 집회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목회 경험을 통해 처음 해 보는 시도라 하셨고 참석한 많은 부모들 역시 자녀와 함께 하는 겨울 수련회라는 참신한 아이템이 그저 새로울 뿐 어떨지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은혜로운 찬양시간 후에 John Lee 형제님과 큰 딸인 Evelyn이 나눈 대화 영상 속에서 그리고 이어진 Matthew Lea 목사님의 저녁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서는 완전히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 되었다. Matthew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아내와 내가 가정 내에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유지해 왔던 일들이 잘못 되었음을 깨닫고 질문을 드렸고 명쾌하게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Santa Cruz 산에서 내려 오자마자 함께 참석하지 못했던 아내와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우리 가정 내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조금씩 바꾸어 보고 있다. 물론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이 글을 쓰는 동안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빠른 변화가 보이지는 않지만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는 참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장대비를 뚫고 달려와 함께 해 주셨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아쉽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갑자기 찾아온 Covid 덕분에 아내와 큰 딸은 갑작스레 함께 하지 못하고 둘째 딸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자녀와 함께 하는 이러한 수련회가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할 것이다.

지난 이틀 동안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Santa Cruz 산 속에서 내려와야 했을 시간에는 거짓말처럼 하늘이 환하게 빛났다. 그렇게 202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우리 가족은 집으로 돌아 왔다. Family Winter Retreat은 2024년에도 꼭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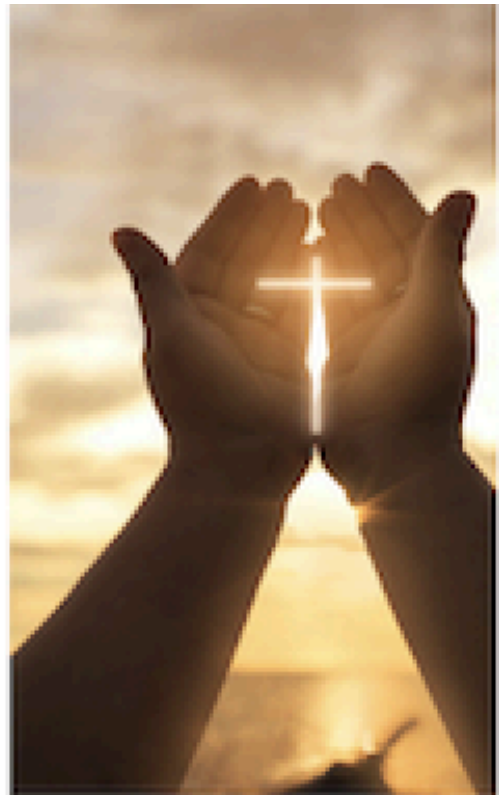
가족 수련회 Family Retreat

글 | 박기찬 (10th Grade)

I always wanted to go to a retreat every year, but when I heard the news that they are having a family retreat , I wondered "How are things going to change with worship and games?" It was the first family retreat we had. After I arrived at the retreat site, I was excited for games, praise, and the most looking forward was the parents that were praising together last night. My favorite moment was when parents joined in the praise and jumped together with us, and game time running to the middle and grabbing the ball and bringing it back to your side.

I was blessed that many parents came for this retreat having a lot of fun during game time and praise. I loved the community that many people came for this retreat like young kids too praising God. I knew that God was working for them, to our parents and for us too. I was encouraged by Pastor Jeff's words for us and to thank our parents for doing a lot of things by preparing our food, caring about our future. I loved when he shared a story of his life how it got changed. I got to know some new people and people I haven't talked to. It was a great retreat.

Retreat was a safe place that we could share out to one another. We could pray for each other, and share the relationship with God. It was a place we all could get closer to God. My experience with God this Winter retreat was trustworthy. My prayers will reach out to God. I got more grace into God to trust that he is always working for us when we are tired or losing hope.



타지키스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유지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박시완 선교사님과
 줌미팅을 통해 타지키스탄을 알아가며 진행할
 사역들에 관해 의논하고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며
 타지키스탄을 품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을 당하신 6년 전
 타지키스탄으로 옮겨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보안유지를 위해 우리 타직팀은 서로를 선생님으로
 부르며 기독교적 용어사용을 금지하는 대화
 훈련에서부터 미국NGO단체 에서 비전 특강,
 코딩클래스,영어클래스를 가르 치기 위해 방문한
 선생님들로 변신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한국어 학당
 수업을 통해 타직 대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통역도 가능했기에 우리 팀원들은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대화에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무슬림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선교 여정이기 때문에, 빵과 복음을 동시에
 전하지 못하는 사역으로 인해, 타지키스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했지만, 예배자와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자로서 타지키스탄 땅을 밟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놀아주는 선교를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생각났습니다.
 어둠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에 우상숭배에서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한국이 있듯이,
 어둠의 타지키스탄 땅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타지키스탄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마음에 품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로 가난한 나라이고 국가
 산업이 없어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어 남자들은 러시아로 돈벌이를 떠나 가정의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선교사 신분을
 숨기고 시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선생님으로
 사역하시는 초중고 통합학교와 두산베 대학교
 IT센터에서 만난 학생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과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있었지만, 밝고 활발했
 으며 한국과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배움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박시완 선교사님은 IT센터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더 열악한

시골 초중고 통합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지원 선교사역일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는 초중고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섬김을 가르치며 봉사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타직팀은 시골의 두 학교에서 코딩스쿨과 영어스쿨로 섬겼고,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기 전 보안 유지를 위해 선교사님 아파트로 걸어 가서 사역과 기도 제목을 듣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합심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섬김을 통해 연합을 보게 하셨습니다. 개인의 뛰어남으로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각각의 지체가 타인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며 함께 동역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매 주일 예배를 선교사님 부부만 드리시다가 우리 팀과 함께 드린 주일 예배에서 송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안수 기도, 중보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셨다는 선교사님들의 눈물 글썽한 고백에 감사했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타지키스탄 사역 6년동안 뉴비전교회 단기선교팀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함께함으로 선교지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선교사님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슬람국가에서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오신 선교사님들의 외롭고 힘든 여정이 어떠하셨는지 그려지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박시완 선교사님께서 선교사역원 기도팀에 보내주시는 기도제목들이 이전에는 머리로만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타지키스탄

땅을 직접 밟고 타지키스탄 영혼들을 섬기며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함으로써 선교사님의 기도제목이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작은 순종으로 타지키스탄 땅을 밟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행하심을 목도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비밀리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학생들이 있었고 누구인지 듣게 되었습니다.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추방당하는 타지키스탄에서 선교사 신분을 숨긴 채 공교육 장소에 침투하여 무슬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님의 사랑의 섬김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학생들이 있고 또한 비밀리에 제자양육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심고 물을 주는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뿐만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였고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린 선교 여정이었습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처럼 옷장 문에서 나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땅에서 무슬림 영혼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합2:14) 말씀이 타지키스탄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케냐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글 | 한경미



케냐 단기 선교를 팀장으로 섬기며 다녀왔습니다. 능력이 팀장이 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케냐 단기 선교팀에 팀장이 공백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팀장을 수락하였습니다. 팀 리더를 해 본 경험이 없기에 단기 선교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예배를 나가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지혜로서가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한 팀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사역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시간부터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는 인간의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케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국할 때 비자도 필요했고, 옐로 피버(Yellow Fever) 예방 주사도 맞아야 했고, 18시간도 넘는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팀으로 묶어 주신 케냐 단기 선교 팀에게는 무엇도 장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번째로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아무리 계획하여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따로 있으시고 우리는 그 인도를 묵묵히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만 된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케냐의 학교와 교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케냐의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커리큘럼이나 시간 계획 등 모든 것이 상황에 맞지 않아서 즉석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안전하고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케냐에서

보이신 것은 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신 점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학교와 교회의 상황은 미국에 비해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 나타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마사이 교회에서 아프리카 특유의 춤사위를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하셨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공부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문화 속에서 토착화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인간의 판단으로 쉽게 정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주셨습니다.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순서가 내가 드리는 예배와 같지 않다고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또한 주셨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할 것이므로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만에 케냐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케냐 단기선교 팀이 케냐의 영혼을 향한 사랑의 선교가 이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케냐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국은희



세계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나라 케냐에 다녀왔다. 여러해 동안 우리 교회 선교사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물 사역지 케냐선교에 동참하고픈 마음을 주셨다. 퍼스펙티브스 선교훈련에서 '선교는 예배다' 와 문화적 관점을 이해 적용하고, 우리교회 주일예배 마지막 찬양 후렴구에 외쳐 부르던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영광의 왕이심' 을 마음에 품고 선교에 임했다. 선교사님과 함께 Wordless Book 과 복음팔찌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전도법을 익히게 되었고 매일 훈련 가운데 복음의 깊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내 속에 가득차 올랐다. 또한 케냐는 공공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였지만 나의 작은 마음이라도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 그들의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찬양을 준비하며 케냐 땅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

6명의 단기선교팀원과 케냐를 향하여 나갔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내 머릿속을 지나간다. 한마음된 팀워크로 주 안에서 말씀받고 결심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준비해 간 모든 것들을 시기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두 곳의 학교와 두 곳의 교회 사역에서 만남을 가진 케냐 사람들은 친절했고 아이들은 우리들의 방문에 신기해 하고 또 우리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었다. 부끄럼 잘 타는 내가 케냐 아이들에게 스스럼없이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과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울동 찬양으로 함께 춤추며, 손 맞잡고 하이파이브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차 올랐다. 하나님은 이번 선교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함께 부른 스와힐리어와 영어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과,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종말에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뵈게 되리라는 기대를 품게 하셨다. 성령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케냐 아이들과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드린다.

케냐 현지 교회들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시간이 참 귀하고 감사했다. 선교사님과 동역하시는 케냐 교회 목사님을 통해 학교 두 곳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VBS 복음전도사역을 함께 하게 되었다.

어린이 복음 사역 때에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목사님 부부 안에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내 마음 속에 밀려왔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이 시간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길 간구하는 마음이 온 성전을 에워싸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한사람 한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케냐 땅에 산소망이 가득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소망하게 하셨다. 또한 선교사님께서 필러링 시스템을 공급하며 관계 맺은 마사이족 교회에 방문할 때는 십여년 전 산호세 지역 선교대회에 만난 복음들고 목숨걸고 마사이족에 다가가간 선교사님 한 분이 떠올랐다. 마사이족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며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 쉬지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상하게 되었다. 그들의 토착화된 교회 신앙 속에 우리 팀은 하나가 되어 그들의 토속춤으로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비록 그들의 부족 문화성이 짙고 토착적일지라도 매 찬양마다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행 2:21, 롬10:8-13) 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음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부르짖는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과 영적 성장과 은혜가 임하길 바라며

주께 소망을 두는 기도 시간이 되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이었다. 이 두 교회와의 만남과 예배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 다른 인종이었지만 온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믿음의 동역자로,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한가지 소원으로 하나님과 한마음되게 하셨고, 한 성령이 흐르는 귀한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린다.

마지막 학교 사역에서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고 울타리 밖에 매달려 서서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봐야만 했던 동네 아이들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울타리 밖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나을 바가 없이 그저 욕심 가득하고 장난기가 넘치는 똑같은 자들이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광경을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마지막 때를 그려보게 인도해 주셨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보다 더 나을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내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침과 동시에 울타리 밖에서 서성거리며 구원의 기회를 놓친 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다. 학교 울타리 밖에 있던 아이들과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와 복음에 반응하는 믿음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다.

김원겸/윤정 선교사님의 복음 전도 지도자 사역과
 우물 선교 사역은 참으로 귀했다. 사역지로 가는
 길목에 많은 교회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 없이 성령을 받았으며 세워진 교회가 많아
 이 점이 케냐 복음화의 어려운 점이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과의 만남을
 위해 오래토록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신학교에서 두분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사역과 우물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하신다.
 이 두 교회들은 지역과 부족에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새로운 사역지를 놓고
 새로운 좋은 만남을 주실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인도함을 기대하며 기도하신다니 나도 그 기도
 마음을 더한다.

케냐 땅에서 만난 눈망울이 큰 아이들이 눈에
 선하다. 선교가 아니라면 처음 만난 그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나누며 서로 손 맞잡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며칠간이었지만 주 안에서 즐거웠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신 케냐에서의 시간들을 회상하며
 선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튀르키예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이신영

튀르키예를 가기 전에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바로 서고 싶다는 마음으로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들과 행복이 언젠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때를 위한 대비를 위해서 혼자서 바로 서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선교에 대한 오해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이루었다기보다는 매일 아침 묵상하고 팀원들과의 나눔 시간과,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제가 이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한국 문화 나이트 이벤트와 예배 홍보 전단지 나누어줄 때 겪었던 거절들과 막상 토요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데 튀르키예 시민들의 시위로 인한 교회 근처에 깔려있던 경찰들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내 전단지를 받고 찾아와 주었던 튀르키예 청년들 한두 명을 보면서 내가 이번 선교를 통해 은혜 받아야 해, 무언가를 하고 가야 해라는 압박감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직장인이 되고 초반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다 일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성취감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것보다 그냥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아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스스로를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 합리화했습니다. 마지막 2박 3일동안 갑바도기아에서 성지순례하는 동안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핍박 받던 갑바도기아 교인들이 살았던 지하 도시에 그들이 예배 드리던 십자가 모양의 동굴 예배터에서 김진리 선교사님이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였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라는 생각을 깨지게 하셨습니다. 그 곳에서 20분 정도 각자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지금까지 했던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서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주신 좋은 공동체, 친구들, 목장 식구들과 동역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주 쉬웠고 편했습니다. 그러다 디모데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 많은 회복들이 있었는데 그후 작게 크게 저의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일이 어찌면 내가 우상 삼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주셨고 이전에는 예배가, 주일 성수가 내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배가 좋고 일로 인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천천히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심으로 나의 삶을 바꾸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튀르키예에서 좀더 선명하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김지은

작년에 이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두번째로 11일간의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작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갔던 첫 해외 단기선교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서도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큰 기대감과 함께 준비를 했다.

선교 사역 중 한국문화체험과 전도집회가 있었다. 사람들로 가득 찼던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숫자가



현저히 낮은 것을 보고 당시에는 큰 아쉬움을 느꼈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전도집회 후 티타임 중 주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통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다. 티타임 중 눈에 들어온 두 자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두 자매와 대화 도중 자매 한 명이 왜 이 곳에 왔냐고 물었다. 그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EvangeCube 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 사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않는다.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과 나의 스토리를 듣고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한 영혼에게라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전도집회 후 선교사님과 가족 분들과 함께 교제할 시간이 있었다. 특히 함께 카파도키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튀르키예의 카파도키아까지 가서 그 곳에서 땅굴을 파고 숨어 살았던 나그네와 같았던 초대 성도들의 흔적들을 보았다. 지하도시 안에 있는 십자가의 모양으로 땅굴이 파여 있던 교회에서 각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다. 그때 성령님의 따스함을 느꼈다.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인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맘돌았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줄기 빛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캄캄하고 어두운 그 외로운
지하 도시에서 언제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터전에 들어가 생각하니 그들이 있었기에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올 수 있지 않았을까
감사하고 그 믿음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그들을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그 사랑의
대해서도 더 알고 싶고 받고 싶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낮선 타국 튀르키예 땅에서 복음을 들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자녀들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땅에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분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교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사실, 선교 여정 초반에 사역을 진행하며 무엇인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욕심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며 나의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다. 단지 사역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제일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겠다는 것이다. 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더 생각 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특히 섬김에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나 공동체를 향한 내 마음은 어떤가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벧전 1장 6-7절)”*



튀르키예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하만수



성인이 된 이후 첫 해외 선교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단기선교팀에 참가하게 되었다. 튀르키예에서 팀의 주 사역은 Korean Culture Night과 전도집회를 하는 것이다. 이 두 사역을 위해 홍보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의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차갑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다. 이를 통해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복음 전파의 현실을 볼 수 있었고, 튀르키예에서 선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영적 도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팀원들이 적어, 준비를 덜 한 것 같아서 선교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김진리 선교사님은 선교지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을 얘기해 주시면서,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이를 보고 ‘어떻게 일하는 것이 과연 선교사님께 그리고 선교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 일일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언뜻 보면 선교 현장의 교회 축제나 집회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단기팀의 의무이고, 잘한 일 같지만, 그 후의 일은 현지를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감당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선불리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이후로 선교사님 가정과 교제할 시간이 많았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소명을 받고 해외로 나온 선교사님이지만, 그들 역시 사람이고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는 않았는가? 그러면서 우리 팀의 테마는 “선교사님을 섬기고 위로하는 것”이라 결정되었다. 나도 선교사님 가정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니, 무거웠던 마음들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조금 더 교제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니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가정의 평안의 비법(?)들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선교지의 어려움은 영적 외로움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그리스도 형제, 자매의 나눔이

부족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많이 영적 외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어려움에도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운 선교사님 가정이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귀해 보였다. 부끄러운 것은 나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한국이나 다른 좋은 나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불편함과 불평없이 의젓하게 튀르키예가 좋아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아이들을 풍족하고 바로 자라게 한다는 것이다. 선교지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가파도키아에 성지순례를 떠나면서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터전들을 직접 보면서 목상할 수 있었다. 박해가 심한 그 시대에 세상을 떠나 땅굴 지하(약 60~70m) 도시에서 살아간 흔적들을 보면서 그 교인들의 마음 속에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 죽음까지도 각오를 하며 힘들 삶을 택한 그 교인들이 있었기에 그 복음이 흘러져 한국에 들어왔고, 또 오늘 날 내가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다. 결국 초대교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전파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고,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희망도 없고 살아가기 척박한 지하 도시 생활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안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목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날 튀르키예 땅에서는 김진리 선교사님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나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시민으로서 살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언뜻 보면 남을 도우러 간 단기 선교인 것 같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가지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선교 여행이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튀르키예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김효선

작년에는 슬픔에서 기쁨을 맛 본 은혜가 큰 경험을 느꼈다고 한다면 올해는 잔잔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원이 받는 은혜를 보며 '아, 이번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은 정말 저 지체를 만나고 싶어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눈 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하 도시에 가서 보았던 침례탕은 저에게 침례에 대한 생각과 나의 신앙을 많이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침례의 참 의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을 통해, 또한 여러가지 일들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적절한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로 선교 여행에 임하게 되었고 사역 후 방문했던 갑바도기아에서 침례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저는 성령 침례와 더불어 다시 한 번 물로 받는 침례가 가지는 의미, 옛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예수님의 새 신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도시에서 몇 백 년 동안 신앙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나의 삶, 그들의 신앙과 나의 신앙, 그들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정금과 같은 그들의 신앙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구원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있지만 또한 마음 한 켠에는 그에 동반되어 조금은 무겁고 숙연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이번 선교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아니면 몇 년 후 저는 2023년 다녀왔던 튀르키예 선교가 결국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대를 합니다.

튀르키예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정진기 (디모데 공동체)

이번 2023년 튀르키예 선교팀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는 이 “관계” 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튀르키예 선교팀은 “관계” 에 대해 선교를 떠나기 전부터 기도를 했었는데 그것은 선교지에 가서 현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항상 같이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 안에서 오해들이 쌓이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들었어서 그것을 피하고 하나의 원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굽은 일을 솔선수범하려 하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했는데 모두 각자의 자리 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200% 하면서 정말 큰 탈 없이 선교가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두번째 가는 선교였던 아이리스와 지은이를 통해서 선교사님들과 그 자제분들이 처음가는 저, 신영, 만수와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더 저희에게 정을 주시고 속마음을 털어놓으셨고 만수와 지은이는 아이들을 좋아하니 선교사님의 어린 딸과 아들의 육아를 해주면서 선교사님께서 잠시나마 쉴 수 있었습니다. 또 저도 회계나 선교 일지 등 제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였고 신영이도 팀원 모두에게 리마인드들을 해주고 여러가지 서포트를 해 주고 한명 한명 모두

하나님께서 선교로 초청하신 귀한 팀원들이었습니다. 신영이는 뉴비전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밖에 안 되었지만 어느새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신영이가 선교를 통해 경험한 생각들을 선교 후에 사람들과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성경 신약의 배경이 되는 곳이 많은 곳이었고 신약에서의 큰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등 여러 번 선교 여행을 갔던 곳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마가 요한을 선교여행에 데려갈지 말지에서 크게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갈라져서 따로 여행을 하게 되지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셨고 마가 요한은 훗날 예수님의 사역을 최초로 문서로 남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선교의 여러 일정들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적절한 때에 생각이 다른 지체들 간에 다름을 인정하게 하셨고 어떤 것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7살 셋째딸 조애가 하루는 “우리 가족이야?” 라고 했는데 진짜 무슨 명절에 친척들 모여서 왁자지껄 하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친가족들보다 더 친하게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팀, 가족같은 관계로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 또 하나는 그것은 선교와 인생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져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선교사님한테 선교헌금 전체를 보내는 게 경제적으로는 선교사님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교를 직접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를 가는 저희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영화에서 “멀티버스” 라는 개념이 많이 소개되는데 이 멀티버스라는 게 히어로가 하나의 행동을 하면서 그 결과들이 달라지는 것인데 선교 또한 각자의 경험을 통해 생각이 바뀌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각자의 인생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년 선교팀의 열매였던 “성준” 이라는 한국말 잘하는 튀르키예 청년과 이번 팀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작년 선교팀이었던 사람들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또 서로 다시 생각하고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카디교이 교회의 청년부 리더였던 티모티와도 친해지고 여러 생각들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주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쿠세, 갈렘 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 선생님 부부, 팀

선교사님 부부, 튀르키예에서의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에게 사역하시는 라이언 부부, 아이들의 인생에서도 저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첫날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커피를 마셨던 곳에서 일하던 바리스타였던 멜틴이라는 친구가 저희가 너무 신기해 보여서 카디교이 교회의 저희 모든 일정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저희가 떠나기 전에 저희를 초청해주고 멀리서부터 너무 저희를 반겨주고 손인사하고 커피값도 안받고 과연 저희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을까요? 이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저희같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목격하였고 경험하였기에 저는 이 믿음의 겨자씨, 믿음의 멀티버스가 어떻게 커져나갈지 기대가 되고 선교와 인생은 이어져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진리 선교사님께서 단기 선교팀을 한동안 받으시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왔던 단기선교팀이 광화문광장 같은 곳에서 본인들이 단기선교를 왔으니 눈에 보이는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워십댄스, 스킵 등을 하고 본인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갔는데 돌아간 그 다음날 김진리 선교사님 교회에는 감사가 나오고 공무원들이 교회를 뒤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살면서 실제 그 땅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은 오히려 단기선교팀 때문에 시험에 드시고 곤란해지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김진리 선교사님께서 튀르키예 땅에 젊을 때 오셔서 20년이라는 시간동안 헌신하셨지만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열매는 없는데 오히려 한국식 유교 문화, 한국인들 특유의 누가 잘나가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상처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선교지를 바꿔야하나 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부인이신 최 선생님은 한국을 그리워하는 향수도 있으시고 이러한 때에 저희가 가서 그 힘든 고충을 들어드리고 힘을 실어드리고 웃겨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저희와의 나눔을 통해 또 그 땅에 말씀을 다시 세우고 선포하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4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새일, 기쁨, 조에(하나님의 생명), 로이(감찰하시는 하나님)였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의 하시고자하는 의지가 너무 보였고 그 가정은 너무나도 믿음의 가정이었으며 아이들이 너무 밝고 잘 자랐고 생각들이 귀하고 예뻐했습니다.

이번에 베드로전서2장의 배경이 되는 카파도키아로 가서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살았던 지하도시, 땅굴, 산, 계곡, 그곳에서의 초대교회와 침례탕, 신학교를 볼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고 빛도 보지 못한 채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편안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라는 건물을 적당히 가고 적당히 시간 보내고 출석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 장소 자체는 그저 역사적인 장소 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떡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저는 처음에는 저 혼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팀선교 카드, 제 개인 선교카드를 통해 작년 목장사람들, 제가 다니던 예전 교회 사람들, 저희 대학교에서의 교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신 뉴비전교회의 성도님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튀르키예 땅에 전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쌓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튀르키예 땅에 전해 준 관계, 제가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전한 관계, 여러분들은 또 제 간증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들을 받으신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본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아가페러브(조건없는 사랑)을 베풀 때 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작은 목소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이때에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쿠르디스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강석윤

크리스천이라면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말씀 때문이다. 물론, 이 필수 사역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필요하다. 직접 육체적으로 다니는 성도도 필요하고 기도와 물질적인 동역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하지만, 말은 역할과 환경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양한 역할과 경험을 할 수 있길 소망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SET2023 쿠르디스탄 단기선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 단기선교 팀 중에 쿠르디스탄 팀 선택과 결정을 내가 한 것 같지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기 때문이다.

은혜로 선택받은 단기선교팀인데 선교 준비는 낯설었다.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에 선교팀에 참여해서 그런 것일까? 교회 사역자임에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그런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하며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나의 끝없는 부족함에 내가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선교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설상가상으로 Covid에 걸리는 바람에 육체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난 혼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 분의 팀장님들과 두 분의 팀원들, 그리고 특별 기도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였으면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난 한 사역자, 한 성도, 한 사람이 아닌 쿠르디스탄 단기선교 팀원이었다. 우리 팀원은 총 5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인 것이다. 손을 보면 손가락이 5개이다. 잘 쓰지 않는 새끼손가락도 다쳐서 사용을 못한다면 생활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다. 그것을 아는가? 아무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새끼손가락이 있어야만 자유롭게 생활하듯이 ‘독수리 5형제’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불사조로 절대 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난 이번 단기선교 일정을 통해 연합함의 아름다움을 보며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 133:1-3)*

팀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5명의 팀원으로는 부족했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새로운 팀과 연합하게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리더자이자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뭘 그리 걱정을 했던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말이다. 현지 선교사님과 다른 지역(네덜란드&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통역만이 아닌 사역도 함께 도왔던 현지 젊은이들, 이들이 한 팀이 되어 시라아 난민인 두미즈 캠프와 예지디 캠프 VBS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무려 12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어떻게 우리 5명으로 가능하겠는가? 여러 팀들이 한 팀이 되어 가능하게 된 일이다. 모든 아이들이 찬양과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찬양과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순수한 어린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이 순수한 아이들이 그 척박한 이라크 북부의 미래라 생각한다.

우리가 방문한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은 캘리포니아보다 더 건조하게 느껴지는 땅이다. 거기도 우기에는 푸르게 변한다고 하지만 희망이 없다고 한다. 어린이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노방전도를 나갔다가 현지 청년과 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자유분방한 모습이였다. 경쟁 사회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미국 젊은이들보다는 더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 청년의 꿈은 캐나다를 방문하는 것이라 했다. 이유는 쿠르디스탄에서는 일도 해도 생활하기 힘들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캐나다는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자연과 노동에 대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캐나다는 숲이 푸르고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는 합리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청년이 잊고 있는 것은 주님 없이는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즉, 이 세상 어느 아름다운 곳도 결국 멸망하는 곳이다. 난 믿는다. 이번 단기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가 만났던 어린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비록 척박한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것을. 이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쿠르디스탄 단기선교팀을 보내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셨던 것이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 지금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도 쉬 없이 일하시고 함께 동참할 일꾼들을 찾으신다는 것이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마 9:37)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길 소망하며 이번 쿠르디스탄 단기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

쿠르디스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 공동체적 구원

글 | 김애경



쿠르디스탄(북이라크) 선교는 여러모로 난관이 많았다. 6명으로 시작한 선교팀은 한명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가게 되며 5 명이라는 작은팀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1 명을 더하여 주셔서 6 명이되었다.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한국비자로는 입국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한 한 형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팀에겐 큰 충격이었다. 5 명의 작은팀과 모자라는 경비, 부족한 준비 등 정말 이대로 가는 것인가 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다. 근데 무거운 마음과 별도로 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격려와 평안을 주셨다. 함께 했던 전도사님의 말대로 독수리 5형제가 그야말로 자신들의 200% 를 발휘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역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고 또 3 시간여의 버스를 타고 자정이 다 되어 도착한 도후이란 도시는 낙후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의 중동 이슬람권 땅이었다. 첫날부터 두미즈 캠프를 방문하여 시리아 난민 학생들을 만나고 사역하던 중 통역으로 온 청년이 갑자기 통역을 거부했다. 종교성을 띤 영상이 그에게 반발심을 일으키며 우리가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분노한 것이다. 아뵤사! 가사에만 신경썼지 영상을 신경쓰지 못한 우리의 불찰! 그러나 아랍어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해 주셔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캠프에는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이 오지않았다. 그 통역 청년이 전날 온 부모들에게 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아이들을 보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와중에 온 서너명의 아이들과 11 명의 팀원(저희팀 5,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님 부부, 이집트 선교사,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과 현지 패트릭선교사님 부부)가 우리끼리라도 이 세명의 아이들과 신나게 사역하자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라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자 어제 안왔던 학생들이 한 두명 들여다 보더니 들어오기 시작하여 여러명의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첫날만큼의 아이들이 함께 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예상했던 초등학생들은 안왔지만 들어오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맞이해서 우리는 재밌는 게임과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며 즐겁게 사역을 마칠수 있었다. 일체 은혜!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교의 본질을 잃지 않고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다음날 컴퓨터클래스도 홍보하며 오히려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광고하는 좋은시간이 되었고 그결과 예상치 못했던 컴퓨터클래스 학생들을 더 모집할수 있었다! 일체 감사! 다음날에는 예정대로 예지디 캠프와 본격적 컴퓨터 사역이 시작되었다. 예지디 캠프는 마음대로 예수님 이야기도 찬양도 할 수 있었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첫 날 예상대로 60 여명의 학생들이 와서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기도하며 열심히 찬양과 말씀을 배우고 전했다. 숙소에 돌아와보니 다리가 너무 아팠다. 오랫동안 아이들과 너무 많이 뛰어서였다. 내일을 위해 주님의 은혜로 기적같은 회복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였다. 근데 기적은 다음날 캠프에 도착했을 때 보게 하셨다. 캠프 철조망에 매달려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영롱한 눈길들, 120 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마다 캠프에 들어오려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우리는 이미 등록한 아이들 외에 모여든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못들어온 아이들은 철조망에 매달려 때로는 소리지르며, 방해하고 분노의 돌을 던지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우리가

팀원이 좀더 많았으면 이 아이들을 수용했을 것을.. 이날 캠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사건을 듣게 되었다. 또하나의 변수가 생긴 것이다. 가족들은 걱정의 안부를 물어오기 시작했고 팀은 이번 선교를 안전히 마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이 모든 사건 중에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우리팀을 왜 보내셨을까? 나의 divine appointment는 누구일까? 계속 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많은 사람이 꺼려하는 이땅 북이라크이면서도 쿠르디스탄이라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명을 달고 자기들끼리 모여사는 쿠르드인들의 땅! 어둡고 소망없는 이 땅! 무슬림문화이나 많은 이들이 종교에 신물이 나서 자신들을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어보였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마다 울려퍼지는 조금은 색다른 “애잔”(이슬람기도)와 선명하게 보이는 Sunrise가 인상적인 대조를 이루는 이 땅. 많은 권리와 기회가 박탈당한 소망없고 고인물같은 이 땅, 그 가운데서도 난민의 신분으로 커가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이들에게 소망은 예수님 뿐인데..기도마저 순탄하지 않았다. 첫날 만난 조금은 눈에 띄는 로심(16세)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어린 학생이 대부분이었던 첫날 캠프부터 5 일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한 로심. 그리고 늘 열심히 참여하며 최선을 다하고 눈망울이 유난히 초롱초롱 하던 로심, 그녀는 9남매중 넷째 딸이었다. 위의 언니 하나는 이미 출가하였지만 나머지 8형제와 부모님까지 한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들 가족

모두, 아버지까지 기쁜 마음으로 영접기도를 하였다
 할렐루야!! 큰딸 에바(21살) 둘째 하이퍼(18세)
 그리고 로심(16세)과 유난히 뽀뽀와 포옹을 많이
 하던 실바(15) 이 학생들에게 복음에 빛진 자로서
 앞으로 한달 동안은 매일 기도할 것을 약속했다 .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다.
 하나님은 왜 우리 팀(독수리5형제) 를 그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보길 원하셨나?
 자문해본다. 누구도 선뜻 내키지 않는 그 땅을 밟게
 하시며 그 땅에서도 팽개쳐져 있는 예지디인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한가족을 구원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 아버지의 마음! 전세계에 아직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영혼이 너무 많은데 나는 한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위해 99 마리의 양을 우리에게 두고
 찾아나서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걸까? 많은 재정과 우여곡절 끝에 이들을
 만나고 가슴에 품기를 위해 달려온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기도하며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성령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것을 다짐해본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쿠르디스탄 선교 간증문

글 | 김은신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

이 말은 쿠르드 민족의 격언이다. 나라가 없어 유랑하는 최대민족 중의 하나로 강대국의 이익관계로 이용당하다 번번히 배신당하는 이 민족은 자신들의 슬픈 운명을 함축하여 부르는 말에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민족이다.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으로 나아간다. 출발을 몇 일 앞두고 튀르키예에서 쿠르드쪽으로 폭탄 테러를 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왔지만 현지 선생님은 그 곳은 아직 안전하며, 팀들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 그 뉴스는 오히려 교회의 많은 중보자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고 쿠르드팀은 그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라크하면 중동 국가로 떠오르는 것은 테러!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가운데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나아가기 전 지역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은 이곳이 구약 성경의 많은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있는 곳,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수메르 문명,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 하나님없이 인간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악한 자의 시도는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지었다는 바벨탑이 있었던 곳으로 당시 성경의 그 시대를 상상해보면서 직접 가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 기대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팀이 섬기러 나아갔던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 민족은, 메대 족속으로 다리오 왕 이후 지금까지 2,500년 이상을 떠돌고 있는 현재의 쿠르드 족이며 요나가 가기를 거부했던 니느웨가 있는 곳,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곳등 많은 성경의 역사가 펼쳐졌던 곳이기에 선교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한층 의미가 더해진 곳이기도 하였다.

우리 팀은 쿠르디스탄 안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와 예지디인 캠프로 들어가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였다. 시리아 캠프에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예민한 캠프 지역이라 우리는 제한된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만들고 게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하였던 것이 나중에 그 곳에
 예비된 딱 한 가정은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영접까지 하는 귀한 일들이 있었다. 그 가정은
 주님이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시리아 캠프안에
 교회로 먼저 일어나는 택함을 받은 가정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예지디 캠프..물려든 많은 아이들... 다행이 찬양과
 복음을 제한없이 전할 수 있었다. 바라기는 팀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들었던
 복음에 이야기들이 마음에 새겨지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자유케
 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쿠르디스탄에 있는 교회 예배 참석...
 메마른 그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물려왔다.바라기는 이들을 진리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십시오. 이 교회들을 통해 메마른
 땅에 꽃이 피는 성령의 역사가 주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회개로 돌이켜 주께 돌아오는 이들이
 무수히 일어나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쿠르디스탄팀... 독수리 오형제!

하나님의 역사가운데 함께한 귀한 동역은 믿음의
 삼겹줄이 아닌 오겹줄로... 어둠이 호시탐탐
 넘어뜨리려 했지만 승리케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쿠르디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글 | 김윤범

쿠르디스탄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였지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오래 동안 캠프에 지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목적은 분명했지만, 꼭 어떤 사역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신 것도 없었고, 뚜렷하게 두혹이 머리 속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터어키 지진 구호 선교를 8월초에 다녀오고 영,육이 지친 상태이고 10월 휴가를 내야 하는 부담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장을 한다는 것이 다른 분들과 죄송한 마음 이었습니다. 결국 단기 선교 출발 2주 전에 회사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게 되었지만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많아 분주할 수 밖에 없었고 더 철저히 준비하려는 욕심이 과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내려 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지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실지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환송을 받고, 드디어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여 24시간 끝에 북이라크 쿠르드자치구역에 있는 Erbil 공항에 내렸습니다. 모든 사역 짐과 함께 모든 팀원들이 공항을 무사히 나와 이라크의 시원한 밤공기는 가르며 2시간 동안 달려 두혹의 미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줌으로만 만나던 협력 선교사님이신 패트릭/안순자 선교사님을 처음으로 뵈고 만남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친근한 환경을 버리고, 낯선 환경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중동의 복음화와 교회개척에 삶을 드린 분들, 잠깐 왔다 가지만 말벗이 되고, 좀더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런 작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것만도 하나님께서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기 두혹은 생각보다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물들, 잘 지은 식당들, 잘 조성된 공원들, 무엇보다도 낯설지 않은 쿠르드 사람들(얼마전에 터어키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이 모두가 친근하였습니다.

오기 전에 틈틈히 이 지역과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언어적으로, 민족적으로 참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이 두혹이라는 도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아브라함, 요나, 나훔 등 성경의 인물들이 활동한 우르, 니느웨(모술) 등 고대 도시들과 가까워서 참 매혹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2일 동안 도미즈 캠프에서, 4일 동안 샤리아 캠프에서 사역을 하였고, 4일 동안 오후에 도미즈와 샤리아 캠프 아이들을 초대해서 컴퓨터 코딩스쿨도 하였습니다. 도미즈 캠프에서 시리아 난민들과

아이들을 만났고, 샤리아 캠프에서는 예지드 사람들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도미즈 캠프는 캠프라고 하기에 안에 집들도 지어지고 있고, 시장도 갖추고 있었지만, 샤리아 캠프는 지원이 잘 되지 못했는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곳 다 오래 동안 캠프 내 살면서 미래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 이후 한국의 모습이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간 VBS관련 노래/춤/놀이/크래프트 등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놀이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을 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면서, 눈이 마주치면 환하게 웃어주고,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참 귀엽고 예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실텐데 이 귀한 아이들이 예수님을 삶에서 만나길 마음 속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하루가 지났고, 마지막 날에 아이들은 저희가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듯이 꼬옥 저희를 안아줬습니다. 한명 한명의 아이들이 저를 지나갈 때마다 머리에 손을 올리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반갑게 한국말로 유창하게 인사하는 예지드 청소년들은 만났습니다. 한참 웃음이 많은 저희 유스와 같았습니다.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말도 따라하고, BTS 노래도 춤도 따라하고, 손흥민, 이강인도 안다고 자랑하는데 여기가 예지드 캠프인지 아니면 산호세인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캠프 밖에서 쿠르드 젊은이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역시 저희가 여기서 보는 저희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도하고, 꿈도 꾸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청년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7살 청년은 카페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뜻밖에도 이곳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절망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의 기쁨,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하나 하나에 그 청년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청년과의 짧은 만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니느웨 땅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길고도 참혹한 역사를 지나서 지금까지도 이 청년과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패트릭 선교사님, 안순자 선교사, 레베카 선교사님, 낸시 선교사님, 프랑스 선교사님, 안나 선교사님과 같은 분들을 부르셔서 그 꿈을 이뤄 가실거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했지만 선교사님들을 돕는 현지분들,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한 시리아 난민 가족들, 캠프에서 만난 시리아와 예지드 아이들, 그리고 27살의 시리아 청년들 모두 구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두혹을 다녀 가지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땅을 향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특히 두혹과 모술의 교회 개척이 이뤄지도록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쿠르디스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홍선영



저는 올해 초 선교 훈련 받을 때는 쿠르디스탄 선교에 사인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민족인지 관심이 없었고 사인업한 몽족 선교를 마치고 튀르키예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경유한 이스탄불 공항에서 기도 중에 올해 안에 이자리에 다시 올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튀르키예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로 갈 수 있는 길이 쉽지 않음을 알고 실망하고 있었는데 쿠르디스탄 팀원들께서 계속 같이 가자고 권유하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쿠르디스탄 선교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을 보여 주시면서 한국어 하고는 다르게 빠르고 액센트 있는 발음으로 “와라와라”가 기도 중에 입에서 계속 반복 되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해져서 팀장님께 flight 정보를 받고 이스탄불 공항을 경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앞뒤 가리지 않고 티켓팅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원들을 만나보기도 전에 저의 마음은 벌써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고 가족들의 응원이 있었지만 자리를 비울수 없는 직장문제로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동역자들을 찾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덕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셔서 10월 3일 드디어 선교지로 출발 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 담임목사님을 선두로 전 교역자님들께서 나오셔서 기도로 배웅해 주셨는데 마치 천군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러 오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스탄불 공항, 2월에 기도하던 그 자리에 도착하였을 때 감격하였고 잠시 앉아 기도 한 후 Erbil 이라크 공항으로 출발 또 도착해서 차로 두어시간 꼬박 하루를 걸려 도착한 duhok iraq M-Center 그리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낯설지가 않았고 오래전 부터 왔던 곳 또 친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도착 바로 다음날 부터 VBS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미즈 캠프에서 만난 시리아 난민 아이들과 우리 팀, 네덜란드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 이집트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안순자, 패트릭, 레베카 선교사님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는데 통역을 하던 무슬림 형제가 찬양 가사 You gave me Jesus~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 혹시나 하고 가져갔던 예방치아 교육과 불소도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과 Crafts, 김애경 권사님의 말씀으로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 아이들 열린 마음에 예수그리스도가 심겨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컨테이너 집들을 돌며 무슬림으로 눈이 가려진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두려움의 영에서 해방되고 참 영생의 기쁨을 맛보길 기도 드렸습니다. 둘째날 통역하던 Ahmet 형제가 부모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보내지말라고 해서 우리가 도착 했을때는 3명의 아이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어제 오지 않았던 아이들이 한명씩 한명씩 들어왔고 신나는 VBS를 하고 끝날때 쯤에는 아이들이 몰려왔지만 정한 시간이 다되어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다음 오시는 팀들에게 바통을 넘기며 추수할 날에 다 주님께 돌아오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셋째날 예지드인 캠프에 도착 했을 때 기도중에 부르신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와라와라”가 쿠르드어로 우리 말과 같이 Come Come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말할수 없는 감동으로 그자리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Here is my Heart”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마음껏 주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손 하트를 보내면서 기쁨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사역보다 주의 사랑이 먼저였고 아이들이 사랑에 목말라 서로 먼저 선생님들을 차지하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속에서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내민 손톱에는 누군가 사랑으로 발라준 메뉴큐어가 다 지워져 있고 어떤 아이들은 piercings 한 귀에 볼품없는 실만 달려 있어 가져오려고 싸놓았다가 우리가 준비한 사역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내려놓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4일 동안의 예지드 캠프 VBS 를 통해 아이들에게 심겨진 복음이 뿌리내리고 싹이 나서 열매 맺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우리팀은 VBS 후에 오후에는 선교 센터에서 컴퓨터 사역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Crafts를 하며 계속해서 미션센터에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길 기도했습니다.

7세기 경에 세워진 St. Hormizd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이라크 모술 땅을 바라보며 선교사님들과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 요나의 선포로 회개 하고 돌아왔지만 100 여년 뒤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 멸망이 예언되었던 그

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했습니다. 유다 출신으로 이곳에 선지자로 와서 문혀 있는 나훔 선지자의 무덤에 들어갔을때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고 뼈를 묻은 이름모를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버랩되면서 죽기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한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침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추수의 날이였습니다. 이바 레일라 가족 1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엄마와 딸 로셈이 위에서 밝은 빛이 내려 오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캠프 안에서 또 쿠르드 민족 가운데서 주님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강조 하셨던 권사님과 이모저모로 섬겨주신 팀장님, 친 자매보다 친하게 지냈던 자매님, 묵묵히 뒤에서 우리를 서포트 해주신 전도사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독수리 5형제” 였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일에 동참케 하시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뉴비전 성경학교 1단계 고현재

제가 처음 접한 교회는 대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새로 사귄 친구들을 따라 수련회를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 당시에는 무섭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곳곳이 친구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초청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모든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한다고 하셨고 저는 거부감이 들어 그 이후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지금의 와이프를 연애 때 만나 뉴비전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1년 반동안 주일날 설교말씀만 듣다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사람들이 이토록 찬양하고 예배드리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 호기심이 저를 목장으로 인도하였고 목사님들과 목원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차차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많았고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성경학교 1단계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1단계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과정,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배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와닿았던 부분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던 전도는 크리스찬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배운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도의 과정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전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이해하기 시작하니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대학때 들었던 설교말씀에 거부감이 들었던 제 자신이 무지하고 교만했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이 간증문을 통해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부로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제게 주어진 영광을 모두 주께 돌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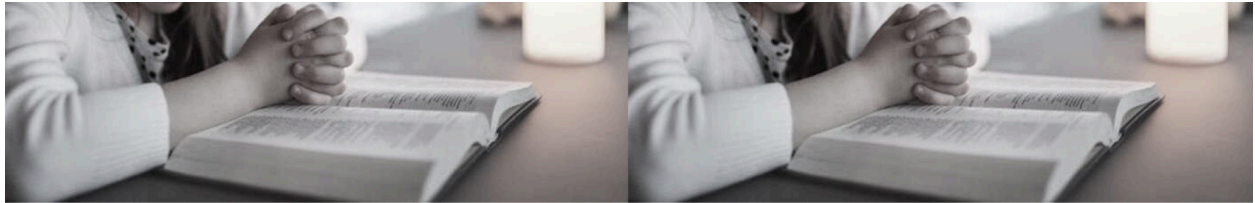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간증문을 통해 목장 목사님들과 목원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있어 제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제가 목장시간에 했던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전도였고 그것이 저에게 믿음이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한한 감사

뉴비전 성경학교 1단계 문창숙



나이 많은 할머니인 제가 1단계 성경공부를 해보겠다고 용기를 낸 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초심으로 돌아가 내 신앙을 재점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배우고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남은 삶을 살아보자고 결단한 것과 멀리 바라만 보던 담임목사님께서 1단계는 직접 성경공부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가까이 대하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되리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설렘으로 들어간 첫 수업부터 노인네라서 그런지 마치 저에게는 신학대학에 들어가 수업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충명한 젊은 학생들 틈에서 수업을 따라가자니 거의 일주일 내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성경구절을 찾고 암송과 요한복음 요약을 하느라 머리가 아프고 눈도 아파왔습니다.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갈등하던 중 네 번째 수업인 교회에서 대면 수업을 받던 날 목사님께서 꼭 보여주고 싶다는 중보기도방에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중보기도 사역을 하기 위해선 1단계 성경공부를 마치고 수료식을 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저는 뉴비전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라서 참 감사하고 좋아했는데 말씀 뿐 아니라 이렇게 영성 깊은 기도도 건강하고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섬김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그 날 새롭게 알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1단계 공부를 꼭 마치고 수료증도 받아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야 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결정하니 매주 성경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요한복음 요약이 어려워서 읽고 또 읽고 쓰고 지우고 또 쓰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요한복음이 그냥 성경이 아니고 그 시절 그 장소에 제가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듣고 읽고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늙어 굳은 머리지만 잊지 않으려고 교재를 보고 또 보고 총천연색으로 밑줄 긋고 별 표시 해가며 집중하고 새기다 보니 어느새 말씀이 내 것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매주 최선을 다해 인도해주신 목사님께서 무한 감사드리고 1단계 성경공부를 완주하게 힘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소명의 삶

뉴비전 성경학교 2단계 김유미

매주 목사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외우는 숙제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 말씀들은 저의 믿음을 성장시키었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하여 다시 한 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와 청지기라는 것을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제직회와 임원들과 사역원장들을 뽑는 시간도 2단계 공부하며 지나게 되었는데, 그 때에도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었고, 그러기에 새로 선출된 성도들을 바라보는 저의 눈도 다른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었으며, 저와 저의 남편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던 터라 그랬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 설명을 따라서 저의 봉사하는 섬김의 자세도 다시 말씀 안에서 바로 정렬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며 그 자리를 청지기로 하여금 채우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더욱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하며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지만, 그 주시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제도를 사용하신다는 공부로 인해서 제직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 참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직분을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과, 주님이 위임해주신 권위를 부여받은 직분 가진 자들을 존중해주어야겠다는 것도 잘 배웠습니다.

몇몇 자매들과 함께 큐티그룹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성경 해석을 위한 여러가지 원리를 배울 때도 매우 은혜가 되었고 재미있었습니다. 큐티는 보통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이라는 것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도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보면 어느 주석이나 사이트가 안전한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었는데 좋은 참고 자료를 알려주셔서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성례와 권징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부분도 유익했습니다. 소위 가십으로 갈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다루어야하는지 말씀 안에서 제시해주시니 좋았고, 성례를 배우며 성찬식이 너무나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교회에서의 소명의 삶을 제대로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재미있고 유익하며 귀한 말씀들 가르쳐주신 두 분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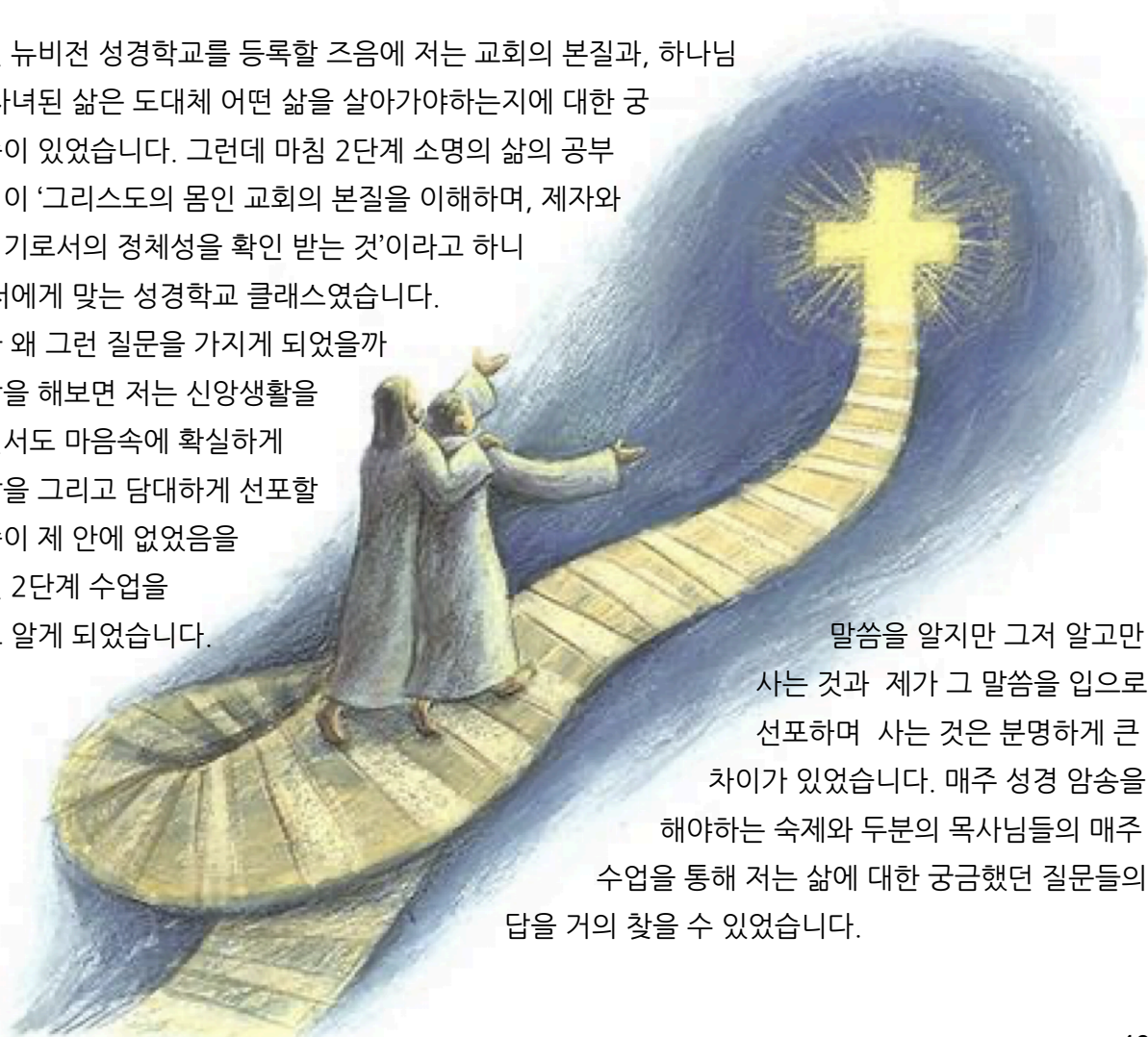
답과 방향을 찾게 된 클래스

뉴비전 성경학교 2단계 박현정

저는 뉴비전 성경학교 등록 기간이 되면 항상 고민을 하곤 합니다. 등록을 할지 말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당연히 등록하여 들으면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매주 수업을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는 분명 육신의 피곤함에 불평을 할 제 모습은 너무 뻘히 보이고, 과제를 해야하는 부담감이 있을 때는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그리고 모르는 분들과 나눔을 해야하는 불편함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등록하기 전부터 저를 주저하게 하니, 결국 유익이 있다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서도 고민을 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지만 이런 저의 모습을 저 보다도 더 아시고 도와주실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뉴비전 성경학교를 등록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이번 뉴비전 성경학교를 등록할 즈음에 저는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2단계 소명의 삶의 공부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며, 제자와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확인 받는 것'이라고 하니 딱 저에게 맞는 성경학교 클래스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을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말씀이 제 안에 없었음을 이번 2단계 수업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그저 알고만 사는 것과 제가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사는 것은 분명하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매주 성경 암송을 해야하는 숙제와 두분의 목사님들의 매주 수업을 통해 저는 삶에 대한 궁금했던 질문들의 답을 거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 중에 특히 잊지 못할 순간이 두번 있었는데 한번은 수업중에 두명씩 짝지어 복음 제시 훈련을 해야했던 순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일에 목장 인도를 해야하는 훈련을 해야하는 순간입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이러한 훈련들을 해야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이 수업을 들을 생각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두가지 훈련은 저에게 오히려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받아야 했을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귀한 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금 저는 제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즉, 저에게 2단계를 들어야 할 명분을 확실히 주시고 훈련들을 피할 수 없게 하신 것이 마치 저 몰래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만 같아 신기하면서도 절대 강요하지 않고 저에게 가장 선하게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면서 마음 속에서 참 풍성함을 느낍니다.

매번 쉽지 않지만 그래서 힘들면 듣지 않아도 될 성경공부를 힘들게 참여하는 제 모습이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자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기에 저는 그 자체가 참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배우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해 더욱더 수고하며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는 목사님들의 모습은 더 좋습니다. 목사님들의 매주 섬기시는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을 다해 전해주시는 목사님 두 분 안재규 목사님 그리고 김성호 목사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간직한 채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삶

뉴비전 성경학교 3단계 김주영

뉴비전 교회를 다니면서 담임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1단계 삶 공부부터 3단계까지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침례교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깊게 알 수 있었고 인터넷 검색이나 평소 목회자분들에게 잘 들을 수 없었던 N국 선교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서 그 어려운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하는 지구촌 중보기도 사역에 참석해 보면서 이른시간에 교회에 모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을 들으며 느껴지는 것이 많았고 중보기도로 도움을 드리기에 전에 제 마음에 감동으로 저에게 기쁨을 먼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는 미디어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미디어팀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Zoom 미팅으로 하는 수업이었지만 집중도나 내용 전달면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중간과 마지막에 교회에 참석에서 Off-Line으로 함께 수업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On, Off-Line의 장점을 모두 가져온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뉴비전 교회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교회는 멀리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숙된 자세로 제가 있는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고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을 나눌 때 너무나 은혜롭고 한주 한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기도제목이 항상 '산호세로 돌아가서 다시 뉴비전 교회를 다니고 싶다'였었는데 이제는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중보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 동안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매주 감동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뉴비전 성경학교 3단계 한정임

뉴비전 성경학교 3단계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뉴비전교회를 8년 간 출석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루고 있던 3단계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를 수료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점은 이번 3단계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재, 강사진, 수업 진행 방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져서 수업듣는 내내 12주간 알차게 지낸 것 같습니다. 12주 매주가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첫번째로 처음 6주는 침례교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한 주제로 진행이 되어서 그동안 몰랐던 제가 속한 침례교 특히 남침례 교단의 특성에 관해 자세히 알게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저에게 강하게 와닿았던 부분은 침례교단의 특수성 중에 분리주의적인 요소가 뿌리깊게 남아있어서 남침례교단의 지탱해 주는구나를 깨달았고 더불어 제가 속한 남침례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체성 찾기로 혼란스러운 요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남침례교회의 정체성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희망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7주차부터 후반부에는 예배와 중보기도, 그리고 뉴비전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One Church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특히 우리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임목사님께서 특강 형식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뉴비전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의 축복받은 세대와 앞으로 더한 축복을 주실 다음세대가 같이 어울리는 공간으로서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벽이 없이 하나된 교회로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매주 성경암송과 퀴즈로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확인했던 시간은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암송을 할 때는 초신자 때에 처음 성경공부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다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주차가 지속되면서 성경암송도 익숙해졌습니다. 금요일 낮시간은 성경암송 준비로 짬짬이 시간내어 메모장에 적어 외우던 시간을 떠올려 보며 그 시간도 소중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세번째로 6주차, 11주차에 있었던 두 번에 걸친 팀사역실습도 참 좋았습니다. 큰교회에 다니고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사역하시고 계시는데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도전받고 그 분들의 수고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주차에 있었던 성찬식과 기도회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을 성찬식으로 마무리 하게 되다니 이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초대되어서 한학기를 주의 만찬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감동이었고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제목을 갖고 합심기도로 기도한 것도 좋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2,3단 계 수료생들이 단위에서 무릎꿇고 기도하며 목사님의 안수기도도 받게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수료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12주간의 기승전결에 주님의 계획하심의 섭리로 한학기가 완성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3단계 교사님으로 수고해주신 송영빈 목사님, 윤주성 목사님, 강석윤 전도사님, 이사라 전도사님, 그리고 이진수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아직 뉴비전교회 3단계 수업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

향수 뉴비전 성경학교 1단계 백유니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 의심없이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CCC 출신의 주일학교 선생님께서부터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 소개 받았고 대학교에 가서 CCC 순장님과 영접 기도를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 십 년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사를 가고 새 교회에 갈 때마다 초대교회반, 일대일 양육, 제자반 등의 이름으로 각 교회의 교육 과정에 따른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50살이라는 나이를 바로 앞에 두고 뉴비전교회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교육 내용을 거의 잊어버리고 살기도 했지만, 이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향수 예배의 1단계 공부반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준비된 교재와 열심히 공부하며 가르치시는 정성스런 수업을 통해 뉴비전교회의 저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는 향수 예배 점심식사와 권사님께서 준비해 오시는 간식의 풍요로움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각 과를 공부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배웠다가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7과 열매있는 전도에 나오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지침은 저희 가족 가운데 있는 불신자를 두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요약 숙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더 자세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구 암송도 애쓰다보니 조금씩 외우게 되어 정말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기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기도 제목과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저의 나태한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섬겼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열심히 섬겼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했었나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내뱉었던 불평이나 원망을 차라리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덕이 되었을까요.

사람이 백 년을 산다고들 하는데 이제 그 절반을 살고라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 다행입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이 본이 되는 모습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려고 애쓰며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향수 뉴비전 성경 2단계 신선희



어느덧 미국에 온지 1년 2개월이 되어갑니다. 한국에서 저희 부부는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 둘을 열심히 키우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며 나름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도 이제 중산층 정도는 됐구나' 생각이 들던 그 때, 저희 가족은 갑작스레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고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습니다. 영어라는 높은 장벽과 살인적인 물가에 위축되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때 목장 자매님에게 이끌려 향수 1단계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해 보지 않은 저에겐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공부였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나누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리버리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를 망설이고 있는 저를 그분이 또 잡아 끌어 주셨습니다. 저의 향수 2단계는 그렇게 자발적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2단계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고백하건데 저는 성경책을 제대로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1단계에서 요한복음을 읽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머리 속이 하얗게 되곤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교훈을 찾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본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교훈도 찾을 수 없고 그렇잖아도 어려운 기도는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고지식한 성격이라 빈칸으로 둘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쉬운 성경도 찾아 읽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빈 칸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 특별히 그날 그날 마음 속에 울림이 있는 말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느껴졌습니다. 감사 드릴 일이 자꾸

떠오르고 회개할 일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고백하건데 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며 울고 웃고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왜 안 될까?’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분들과 저 사이에 유리 벽 같은 것이 존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왜 나에게만 말씀이 안 들릴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저를, 이 정도면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저를,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까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저를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왜인지 이유도 알 수 없는 은혜로 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느낍니다. 세상 어떤 기쁨이 이와 비교나 될 수 있을까요. 세상 무엇이 이보다 든든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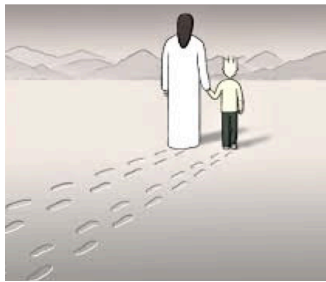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눈 뜨게 하심은 저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픈 아들 그리고 아들과의 갈등으로 피폐해진 남편을 엄마로 아내로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상처가 회복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손을 놓지 않으셨듯이 저희 가정도 하나님 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서야 깨달은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행

마더와이즈 동행 성언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습니다. 저에게 동행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줄" 이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더 더욱 '지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무엇이랄도 하나님의 말씀속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리고 동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말씀, 전도서에서 보여주신 구절구절이 예전에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과는 다르게 새로운 것들로 다가왔습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라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해아래의 삶' 과 '해 위의 삶' 이 다름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강조했던 그 옛날의 허무한 경험들이, 지금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동행의 주제들은 실제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쉽기도 어찌 보면 참 나누기 힘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 동행 1반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은혜롭게 나누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심을 느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며 고백하는 자매들을 바라보며, 그분이 잘 이겨 내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떠나면서 슈트케이스에 동행책을 넣어갔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 동행을 공부하며, 한국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동행은 내게 꼭 필요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신 그 허락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동행을 인도하셨다는 리더 권사님의 지혜와 담백한 놀라운 그 사랑의 인도에 감사드리며 함께 나누며 애쓰셨던 우리 동행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를 항상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안에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도서와의 동행

마더와이즈 동행 권정화

이번 향수 동행반에 참여하게 된 것은 나의 겨울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평소에 읽기를 좋아했던 전도서를 기반으로 만든 [동행] 이라는 책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7주 과정을 끝낸 지금 현명한 미국 언니를 만난 기분이다. 저자 드니스 글렌은 선뜻 조언하기 힘든 재정, 상속, 죽음, 관계등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있다. 여기에 나에게 위안을 주었던 길이 되어주는 전도서 몇 구절을 적어 보려 한다.

전도서 1:2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5: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의 몫이로다.

전도서 12:13-14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세상에서 남부러울것 없는 부유한 사람, 세상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인정을 받는 솔로몬 왕도 모든것이 헛되다하니 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공평해진 느낌이 좋았었다. 예전에는. 그러나 몇년에 걸친 나의 겨울이 끝나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힘이요 구원이시라 노래하는 요즘 높은 곳을 바라보며 부족한 것에, 채워지지 않은 것에 갈증을 내던 나를 회개하며 가진 것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려 한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본분임을 마음에 새겨본다.



동행은 나의 길잡이

향수 마더와이즈 동행 김정애



사랑 253 목자님의 권유로 향수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동행클래스에서 자매님들과 함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며 서로의 마음과 삶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관심없이 그저 책 속의 내용은 이론적으로 완벽할 뿐 현실적으론 삶의 적용이 어려운 사설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 정말 나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나의 마음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지금 나의 인생여정은 겨울을 향해 달리고 있다. 찬란한 봄과 화려한 여름을 지내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은 가을을 지나 이제 곧 겨울을 맞이 할 것이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계절을 보냈지만 그의 겨울은 너무도 춥고 스산했다. 나는 다가올 겨울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낼 것인가? 생각할 이때에 마음이 후련해지는 해답을 얻었다.

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때에 따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해 위의 인생을 소망하며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 아래인생을 살며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말씀과 비유로 수없이 권고하셨지만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했음을 고백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의 첫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단단하게 나의 여정을 다듬어 겨울의 끝자락에서도 환하게 빛추어 줄 수 있는 은혜의 빛이 되길 기도한다.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향수 마더와이즈 동행 유정란

마더와이즈 동행은 전도서 말씀을 기초로 12주간의 여정 속에 한 주 한 주 말씀과 묵상 나눔을 통하여 위기와 고난, 고통의 시간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가까이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은 괴롭고, 힘들며 지루하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해 주었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었으며 우리를 지혜로 사는 길로 안내해 주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해 아래" 삶이 아닌 "해 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소그룹 나눔 속에 모두에게 찾아 왔었고, 찾아 온 춥고 힘든 인생의 겨울에 기도로 함께 나아가며 함께 울어 주고 서로 위로하며 위로 받고 나 혼자만 겪는 인생의 겨울이 아님을 알았다. 우리 주님께서는 춥고 힘든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다. 이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드린다.



우리과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해 아래" 삶이 아닌 "해 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본다.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의 여정을 사랑과 따뜻함으로 이끌어주신 리더 김영미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한 주 한 주 은혜로운 나눔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해 주신 동행1반 집사님, 자매님들과 함께 했던 귀한 시간이었다.



주님과 동행하며 협력하여 이뤄내는 선함

향수 마더와이즈 동행 한여정

마더와이즈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었지만 일회성에 그쳐 버린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이번 동행을 선택하면서도 솔직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보다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리더님을 더 기대했었다. 작은 위로와 씬 정도만 찾을수 있어도 감사하다 생각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가 아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게 주셨다. 차분하고 깊이있는 리더님을 통해 참된 위로 신뢰를, 함께한 소그룹 지체들을 통해 공감과 지혜를 또 동행 교재를 통해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일지도 모르는 어떻게 살아야할 지에 대해 특히 무엇을 감사하고 사랑하며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할 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셨다.

동행이 아니었다면 더 멀어 졌을 남편과의 관계, 더 어긋나 돌이킬 수 없어졌을지 모르는 큰아이와의 관계,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 작은아이를 향한 관심등 내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관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주심으로써 답을 주신 것이다. 내가 바르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관계가 가족임을 또 주변의 지체임을 그안에는 내스스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동행을 마치더라도 매일의 삶에 주님이 내게주신 지혜를 녹여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7주가 너무 짧게 느껴져 동행을 떠나기 싫을 정도로 감사하고 매 시간마다 지혜를 배우고 기뻐던 시간이었고 리더님과 멤버분들 그대로 한 번 더 듣고 싶을만큼 아쉽다. 이렇게 짝찬 해피엔딩으로 7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눔의 삶을 통한 기쁨

향수 마더와이즈 동행 김미경

지난 봄학기 향수3단계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이번 동행 클래스는 주안에 머물기 위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수업의 타이틀도 항상 소망하는 주님과 “동행”.. 그래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전에 전도서를 읽었을 때의 “헛되다”는 표현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헛됨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세상 모든 풍요를 누리며 살던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통해,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지만 결코 우리 스스로가 멀리하지 못하고 우상 삼았던 그 물질이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함을 새삼 깨닫게되었다.

지금 나는, 주께서 주신 가을의 풍요로움과 같은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 우리 가족에게 주신 크고 작은 고난조차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나의 거울을 보내기 위해, 주의 뜻을 구하며 주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 주의 은혜로 받은 그 물질을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수 있음을 알게 하셨기에 더욱더 주의 내주하심을 소망하게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간구하게 된다.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일하는 손길과 물질에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동행하심을 소망하며 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다가올 겨울이 얼마나 풍성하고 따뜻할까..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다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는 질문을 받게된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동행 클래스를 통해서 머리로는 이해했어도 행동 면에서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나의 연약한 믿음과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던 많은 신앙적인 고민들을 함께 해준 우리 동행클래스 자매님들과 그 귀한 모든 시간이 있게 인도해주신 우리 리더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인생과 오늘의 때를 감사하며

향수 마더와이즈 동행 윤미영



한 클래스를 통해 저의 전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 반을 통해 전도서를 공부하며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내가 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을 부러워하며 가져보기를 갈망했던 많은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감사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사춘기를 지나는 둘째에 대한 서운함과

집착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지나갈 것임을 배워 바로 지금 오늘 허락하신 때에 맞는 일을 즐기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숙제가 있습니다. 나의 장례식을 준비해보는 것이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순서를 계획해보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남길 말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은 아주 의미있고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나를 위해 조사를 읊어줄 명단도 작성해보고 먼저 가서 천국에서 기다릴테니 울지 말고 나의 천국환송예배를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소망을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가 남길 금전적, 영적 유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며 상속과 유산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때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전12:13-14)’의 말씀을 통해 미리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의 조언을 받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끝을 모르고 막연히 불안하게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만날 날을 아는 곧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내 인생이시니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감사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싶은 소망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클래스를 인도해주신 리더님과 함께 웃고 울며 기도한 자매님들께 감사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때’의 소중함!

향수 마더와이즈 동행 정명분

동행이란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 합니다. 한 곳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경공부는 시부모님의 방문으로 분주한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시작 했지만 첫날부터 빠지고 중간에 일이 있어서 빠지는 시간이 많았지만 나눔 가운데 도전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셨듯이 때가 있음을 말씀 하실때 는 나이 50이 되고 보니 정말 항상 그 때가 있음에 공감했습니다. 올해 친정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더 오래 사실 줄 알고 잘 못 해 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 빨리 하늘 나라로 가셔서 그 때라는 의미는 저에게 더 많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부분은 작년에 한국에 가서 엄마께 복음을 남편이 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상 장례를 생각하며 각자의 유서를 나누는 시간엔 아이들에게 남겨야 할 부분과 남편에게 부탁해야 하는 나눔을 말하고 들으면서 마치 죽음을 앞둔 것처럼 서로 울며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이 공통으로 남았습니다. 이래서 주님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씀 하신 듯 합니다. 동행은 날마다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생각 하며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크리스천들 가운데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때” 라는 표현에 지금은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는 때 인 듯 합니다. 리더로 섬겨 주신 집사님과 함께 공부한 자매님들과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 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깨달음

향수 마더와이즈 동행 안은주

수년 전, 아이들을 한창 키울 때, 마더와이즈 시리즈를 통해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중심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고는 기쁨과 안도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 학기 향수를 통해 무엇을 공부하고 적용할까 보다 보니 '동행'이라는 새로운 드니스 글렌 여사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부제가 '인생의 거울에 만나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제목이 나에게 시기적절히 와닿았다. 요즘 자녀의 성장, 노년의 삶의 준비 등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전도서를 중심으로 삶을 풀어나간다 하니, 인생과 믿음의 선배인 저자로부터 깊은 통찰력을 배우고 싶은 기대가 컸다.

전도서는 읽을 때마다, 나이에 따라 참 다른 느낌을 주는 말씀인 것 같다. 어릴 때의 전도서는 막연하고, 허무했고,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에 읽은 전도서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했고, 나에게 겸손하라고 계속 외치는 듯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많은 '때'를 보게 하셨다. 새 생명이 탄생할 때부터 본향을 향할 때까지 매순간 맞이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지혜와 지식을 내려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때"를 성실히 준비하고 맞이하라고 하신다.

이제껏 지나간 나의 '때'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능력과 지혜를 우선으로 여기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자랑으로 교만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이런 나의 헛되고 어리석은 '나의 지식'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니 참 감사한 한 학기였다. 또한 같이 공부하는 리더님과 자매들을 통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사랑과 격려로 힘을 주시니 은혜로운 나눔속에서 위로도 많이 받았다.

이번 동행 과정은 끝났지만 앞으로 생각할 일, 결단할 일이 많이 남았다. 진정한 유산에 대한 관리, 관계에 대한 숙제, 죽음에 대한 태도 등 아직 머릿 속에 막연했던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정리가 필요함을 직면하게 하시고 기도중에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 하고자 한다. 한 학기 동안 기도와 배려로 동행반을 인도해 주신 리더님께 감사드리고, 잘 마칠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설렘으로 만나는 향수

마더와이즈 자유 김은유

올해 8월, 어느덧 15개월이 된 딸 서아를 유모차에 싣고 첫 가을 향수 예배의 첫 문을 두드렸을 때 너무나 설렘했습니다. 이번 마더와이즈 자유 반에서는 어떤 새로운 자매님들을 만날까.. 점심에는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 서아가 너무 좋아하는 유아방에서 매주 얼마나 재밌게 보낼까..자유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울까? 매일 어린 아이와 고군분투하는 부족한 엄마 이기에 향수는 저에게 있어 하루 낮에 잠시 실수있는 쉼터 같은 존재였고, 너무나 재밌고, 매력적이고, 감사한 곳이었습니다.

첫 날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따스한 리더님, 자매님들을 만나 더더욱 기대가 되었고, 기뻐했습니다. 매주 육아 선배님들, 자매님들을 통하여 배우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데니스 글랜의 간증들과, 청소년 자녀교육 내용에 많은 깨달음을 얻을수 있어 좋았고, 또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어머니 팁을 제가 삶속에 종종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때때로 제 자신을 놓았을 때 (육아와 살림으로 너무나 지칠 때), 나는 사랑받는 사람, 소중하고 가치있는 존재,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저의 정체성을 다시꿈 배우고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또 봄 향수가 기다려집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주님의 자녀로써 저를 언제나 인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큰 그림

향수 마더와이즈 자유 박수진

저는 댈러스에서 3개월 전에 이주를 해 뉴비전교회를 다니게 된 지도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댈러스에서 거주할 때 산호세에서 온 자매들이 향수 수업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줘서 산호세에 가면 꼭 들어보라는 추천에 의해 망설임 없이 향수를 등록하게 되었고, 이번 학기는 마더와이즈 자유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자인 드니스 글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녀를 어떻게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지를 알려주는 유익한 수업이었고, 두 자녀를 둔 저에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존경받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좋은 엄마, 좋은 아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늘 짜증내고, 화내고 조급한 엄마입니다. 전 자유 수업을 통해 제가 부족한 엄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심 기뻐했습니다. 당연한 거였고, 그건 나의 의지로 결코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 성경구절이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매달려 있지 않은 가지였고, 주님께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또 잘라내야 할 가지가 너무 많음을 깨닫고, 수업 내내 지나간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과 3년 이상 기러기 생활로 떨어져 지내다가 3개월 전 산호세로 오면서 온전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전한 가정을 저는 감사함을 잊은 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가사일도 돕지 않고 아이들의 양육에는 관심 없는 남편이 밉기도 하고, 열심히 회사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잘됨이 가끔은 질투의 대상이 되었으며 새로운 곳에 와 다시 인간관계를 시작하려는 저의 상황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성적과 적응에 대한 모든 것이 걱정과 불안 속에 늘 짜증과 화로 가족들을 대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자유 수업을 통해 한 주 한 주 육신의 가치를 잘라내고 새 진리를 담을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버리고 버려 제 중심적인 낡은 사고 방식을 없애고 주님 안에 새로 태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유 수업을 듣기 전에는 자녀들에게 대함에 있어 저는 육신의 엄마였습니다. 사랑과 칭찬보다는

수학 공부는 끝났는지, 학교에서는 시험은 몇 점을 받았는지,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중은 잘 하는지,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 늘 세속적인 평가와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화내고 비난하며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제 양육 방법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며 내가 주는 사랑과 희생처럼 너의 가정도 그리 돌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매주 새로운 수업을 들을 때마다 참된 방법을 알아가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였고 주님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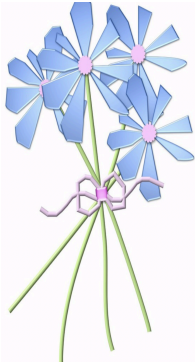
지금의 저는 나의 의지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로 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제 가족 모두 주님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 수업을 함께한 우리 자유 자매님들과 리더 집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수업 동안 서로의 나눔을 통해 위로와 힘이 되었고, 하나님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나의 가정을 위해 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많은 지혜와 깨달음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댈러스에서 산호세로 와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고 서툰 저에게 향수 여성 예배는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신 향수 자매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음 모든 감사 모두모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자유라는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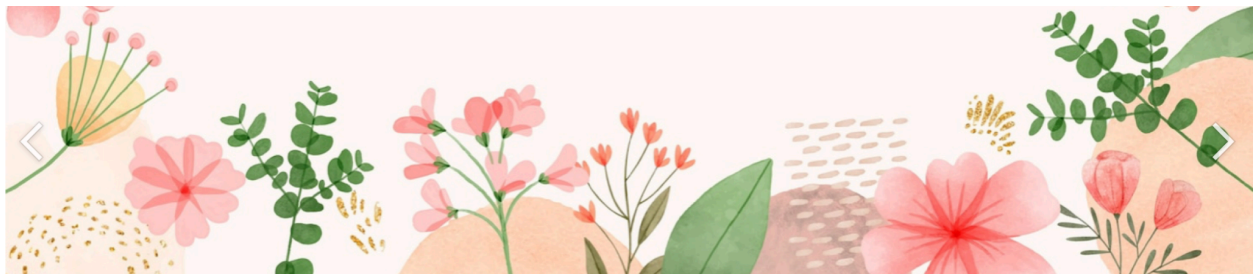
향수 마더와이즈 자유 손주영



나에게는 공사다망한 2023년 가을학기였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나는 하루라도 집에 혼자 있는 날이 없었다. 하루하루 해야 하는 일들과 약속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유반 숙제도 겨우겨우... 안 했다는 것만 면하게 해서 출석을 했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런 정신없는 나에게도 마더와이즈 자유 시간에 틈틈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전에도 들었던 수업이었지만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여전히 육신으로 매여 있는 약한 존재임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서는 쉽게 사탄의 종노릇 하는 악하고 악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셨다. 특별히 자식의 일에 조급하고 분내고 걱정이 태산인 엄마의 모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하고 전에 잘랐지만, 또 스물스물 자라난 문어 다리를 한 번 더 세계 잘라냈다. 아이의 작은 일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한 박자 쉬고 주님께 기도하는 엄마가 되리라고 새롭게 기도한다. 하나님의 집도하셔서 내 아이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자라게 하실 것을 믿는다. 아멘

난 별일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가을 학기도 나에게 스파크가 튀는 큰 변화의 일은 없었지만 죄인 중의 죄인인 손주영의 하나님은 날 또 이렇게 상하지 않게 닦으시고, 살피시고, 보살펴 주셨다. 그걸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난 또한 주위를 돌아보며 주님의 눈으로 보살필 곳을 찾아 떠난다.





하나님의 인도로 얻은 소중한 시간

향수 마더와이즈 자유 이지혜

타교인인 저는 향수 개강 전날 향수 수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급하게 뉴비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마더와이즈라는 수업은 주변에서 좋다고 들어서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심리적으로 저의 문제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딸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고, 라이드에 대한 걱정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한번 해보자는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유, 지혜, 동행, 실천 등 마더와이즈의 과정이 많아 어느 것부터 해야 할지조차 선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자유반을 선택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편안한 상태에서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향수 예배를 통해서 좋은 찬양도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도 재미있게 듣고, 음식도 맛있게 나누고, 각자 선택한 반에서 자매님들 생각도 공유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어머니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유반의 숙제는 하루에 한 챕터씩 읽으면서 질문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 적어야 했는데 성경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힘이 들었습니다. 챕터에 있는 드니스 글렌의 글을 읽으며 출치기도 바빴습니다. 겨우겨우 두꺼운 책을 읽어 나가다가 거의 책 후반부에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 즉, 사탄에게 굳게 맞설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딸에 대해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었는데 드니스 글렌은 성경 구절 안에서 문제가 발생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대해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어도 그것이 반복되면서 잔소리로 밖에 들지 않던 딸아이가 직접 자유 책의 내용을 메모하며 실천을 해 보겠다는 모습을 보고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저를 믿음의 세계로 강하게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자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아이의 문제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불안했고 두려웠고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사탄이 저에게 들어오면 사탄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달 동안 딸아이가 향수에 매주 가기 싫은 마음을 이겨내고 꾸준히 다닌 것도 저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한달 쯤 되었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했는데 출발하기 하루 전날 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픔과 함께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 드렸고 급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가는 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유반 자매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의 위로와 염려 속에 장례를 무사히 치루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종종 겪게 되는 고통의 순간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제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니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매주 라이드를 해주셨던 자매님, 리더님,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자유반 자매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기에, 또한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셔서 자유 과정을 잘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주 동안의 마더와이즈 자유의 성경공부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지혜를 알려주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의 나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향수 마더와이즈 지혜 이주현



언제부턴가 향수 소그룹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바쁜 일상 탓인지 아니면 부리더라는 부담감이었는지 처음 인원이 적어 클래스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오히려 더 기쁨 마음이 들만큼 멀어져 있는 제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두고 끝까지 꺼내고 싶지않은 고백이었습니다.)

클래스가 열리기 바로 전 날 두 분의 자매님이 등록을 하시면서 리더님과 저를 포함 다섯명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명의 집사님을 제외하고 모두 비슷한 나이의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제가 리더로 섬기는 것이 가장 부담스러웠던 핑계 중 하나가 나이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앞에서 클래스 리더로 섬긴다는 것이 생각만해도 참 어색하고 긴장이 되었기에 지혜를 선택한 이유도 지혜반이 다른반에 비해 어린 자매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제가 가장 나이가 적었습니다. 생각만해도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클래스가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부하며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위해 매순간 기도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쓰겠다고 무슨 걱정이니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일할테니... 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의 클래스 인도는 부담이 되었고 준비해간 것들을 하나 하나 잘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버벅이고 헤매이고 나도 내가 무슨말을 하는지 몰라 얼굴이 확 달아오르기도

했지만 그 모습도 격려해주시는 자매님들의 풍성한 나눔으로 매 시간 시간은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6S기도는 같은 토대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 더해져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나눔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중간에 새친구로 들어온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입술에서 삶 속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한 주 한 주 깊어지는 기도를 들으며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남편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바라지만 믿음의 제사장인 남편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남편의 기도의 후원자로 내조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잔소리 하고 세상의 기준과 잣대에 아이들을 올려놓기도 하지만 또 회개하며 아이들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리며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에 말씀을 공부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고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걱정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이번 학기를 통해 더욱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시 태어난 생일

향수 마더와이즈 지혜 이채은

한국 지구촌 교회에서도 가끔씩 향수 예배를 갔었는데 이번 지혜 소모임처럼 클래스를 듣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종교를 묻는다면 교회 다닌다고 얘기만 할 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그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년 지내는 시간 동안, 친척분들이 여기 계셨고, 또 이 뉴비전을 다니셔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다닌 지구촌 교회와 결이 비슷한 자매 교회인 것같아 더 믿음이 가고 정이 갔습니다. 그래서 향수 예배도 거부감없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혜 클래스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자신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닫고 반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일 큰 감사함은 리더님께서 복음제시를 해주시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늘 저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무 죄책감 없이 자신을 마음껏 사랑해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큰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임을 깨달으며 그 동안 늘 불안했고 예민했던 저의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헵시바

향수 마더와이즈 회복 조순임

마더와이즈 회복반에서 공부하면서 책에 소개된 예화를 통해 생소하게 느껴졌던 유대 전통 결혼 과정들의 상당 부분이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혼례와도 닮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한 과정 한 과정 준비할 때마다 함께 설렘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 준비 과정 속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희미해져 버린 기억들을 회상하며, 잠시나마 그때의 그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가끔 미운 짓 하는 남편도 예수님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기쁨이겠구나 싶은 마음에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싸워서 뭐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예비된 신부이며 그분의 영원한 기쁨 헵시바라는 저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 너무 나도 행복하고 진정한 영적회복을 얻은 소중한 6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에 걸맞는 영적 옷을 입고, 예의와 행실을 갖추는 훈련을 매일하며, 지금도 저를 위해 천국 신방을 꾸미고 계실 신랑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길

향수 마더와이즈 회복 전지영



여름방학 동안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정신 없는 와중에 가을학기 향수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년 전 자유반을 했던터라 자연스럽게 회복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룯과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나의 관계를 배우고 유대인의 전통 결혼을 알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들 이었습니다. 신랑의 전부인 토라를 팔아서 맞이하는 선택 받은 신부가 우리라는 것,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마음에 새기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외우며 부족한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택함받은 신부라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택함 받은 것에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열매맺는 삶을 살아야 겠다는 막연한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벗어나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 나가야 할지... 생각할수록 어렵고 막막했지만 회복반 리더님, 자매님들과 나누고 공부하며 용기를 갖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함께 기도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는 할수 가 없다는 것.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 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

분주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제일 중요한 것을 소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사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다음 학기에 등록해야지 생각했었는데, 가을학기 등록을 하지 않았음 후회할 뻔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회복 반을 통해 큰 은혜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향수 말씀카페 기쁨 강청금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장소 중에는 갈릴리 바닷가, 우물가 등 물이 있는 곳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38년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태어날 때 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씻고 나음을 입은 곳이기도 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성전에 들어가 번제로 드려질 양들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 상처난 곳을 치료도 받으면서 예물을 준비시키는 곳 이었습니다 양의 문, 성전으로 들어가 죄를 대신해 찢겨질 양들이 들어가는 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준비시켜야 했을 그 수많은 양들로는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질수 없기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 마지막 종강쯤에 추석을 맞이하여 시부모님과 시동생 가족이 미국을 방문하시겠다는 소식을 받고 분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집안 정리와 부모님이 머무실 공간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의 서재를 가라지로 옮기는 등 여러가지 일들로 오시기도 전부터 지치기 시작했고 거기다 부모님 라이드와 일정을 위해 원래 계획했던 가을학기 믿음의 여인반을 못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의 일들 속에서 속상하고 관계에 대한 불평들이 쌓이면서 그 상대방과 부딪히고 나면 생기는 불편한 감정들이 저를 쫓먹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방문 계획과 더불어 모든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인가 하나님께 여쭙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웃기지요 내가 하는 내 사역도 아닌데 모든 사역은 내려놓으려 하면서도 향수 찬양팀만은 내가 없으면 안될텐데라는 걱정어린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모든 방문이 취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을텐데 하고 의문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힘들게 하시면서도 영적으로는 부모님 오시기 바로 전까지 부흥회와 향수의 말씀으로 저를 끊임없이 세워주고 계셨습니다. 특히 리더를 내려놓고 죄송한 마음에 힘들어 하는 저에게 말씀카페 부리더라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부모님 오시는 동안 빠져도

되고 리더와 부리더가 다 빠지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 일들에도 의연하게 대처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실거라는 말씀카페 리더님들을 보면서 매주 찬양팀에서 마이크가 안나오고 화요일 아침이면 터지는 크고 작은 상황들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들이 떠오르며 아 이번에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라시는구나, 그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카페를 하면 전주에 미리 예습을 하고 리더 모임을 한 뒤, 향수예배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소그룹에서 그것을 나누게 되니 세번을 맛보게 되어 정말 좋을 것이라는 리더집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돌아가 참 기쁨이신 하나님을 되찾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셔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리더모임 녹음본을 올려 주시면 혼자 방에 들어가 교제를 펴두고 공부를 하면서 ㅋㅋ거리며 마치 함께 있는 듯한 기쁨을 누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참 감사한 경험은 월요일 찬양팀 연습을 갈수 없어 부모님 가시고 난 바로 그 다음날 향수를 바이올린으로 봉사하지 않고 아래에서 청중으로 예배드리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빠지는 것이 죄송하고 연습없이도 그냥 서도 될텐데요 하나님께 여쭙봐도 하나님은 훨훨 날아가 나비가 꽃으로 가듯 향수예배 드리는 것만 허락하셨고 그 날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잘 봐 니가 없으면 안되는 건 없단다 니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음에 감격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화려함,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만 오롯이 의지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 다시 한번 어떤 마음가짐으로 중심을 잡아야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고 모나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그 사람이 유독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은 내 곁에서 머물게 하기를 허락하신다면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그저 열심히 하는것 뿐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사역에서 힘들고 또 시부모님은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분들임에도 하나님은 이번 학기 모든 일들을 통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 흔들려도 괜찮다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돌아갈 곳이 있고 중보해주는 기도가 있으며 제가 힘들어 할 때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 주는 향수의 모든 자매님들 덕분에 그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이며 기쁨의 원천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은 지치고 힘든 모든 영혼들에게 쉼과 평강 그리고 새 힘을 주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들어가고 나오며 풍성한 그 은혜에 머무시길 소망하며 만약 그 예수님을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함께 그곳에 머물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향수 말씀카페 온유 광지혜

향수를 시작할 즈음 제 삶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때였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혼자서 나아가기엔 힘이 들고... 그런 나의 모든 상황과 내 안의 그 갈급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향수 예배 개강날 아침 향수 예배가 생각이 나게 하시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작 직전에 향수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 카페 온유반 소그룹 모임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면서 가졌던 향수 예배과 소그룹에 대한 마음은 기대와 열정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저 있음으로, 그저 있으면서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했던 작고 소극적인 연약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첫 소그룹 모임에 들어갔던 때의 만남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조인한 온유반은 저와 비슷한 30대 자녀들을 두고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이 계신 반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집사님 모두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새로운 만남이었고 어른들이 어려운 마음에 긴장이 되기도 했지만 딸처럼 귀하게 대해주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의 사랑, 품어주심에 온유반 일원으로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좁으로 가진 첫 만남 이후, 이 만남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온유반 권사님들, 집사님과의 만남은 특별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대 선배님들이신 권사님들, 집사님과의 말씀 공부와 나눔을 통해, 특별히 권사님들, 집사님의 쌓아오신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어떻게 살아서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히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 공부 이상의 믿음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향수 기간 동안 저는 특별히 고난에 대해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보다는 자기 힘든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놓치기 쉬운데 저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온유반에서 권사님들이 살아오시면서 겪으셨던 혹은 현재 겪고 계신 여러 형태의 고난들을 듣고 보게 되면서 고난을 대하시는 권사님들의 모습과 그런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그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 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주신 선물의 삶

향수 말씀카페 인내 박민주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신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말씀되시는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게 되는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매일이 사랑받는 자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되신 예수님은 육신이 지치고 피곤함에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셔서 네 남편이 어디있냐고 그 여인의 비참함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하듯이 제게도 '사랑'이 없음을 말씀하셔서 회개하게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그 참 사랑을 주셔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주시길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참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서 우리의 이름 하나 하나, 특징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목숨까지 양을 위해 버리신 참된 목자되신 예수님처럼 맡겨주신 목원들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중보하고 섬겨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에 이르는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여느 사람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을 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앞으로 자유롭게 담대하게 늘 나아갈 수 있으며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지체이나 저를 괴롭고 힘들게 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의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은 자가 저임을 깊이 깨닫고 슬퍼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조용하고 따뜻하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듯이 제게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은 없느냐?'하고 물으셨고 눈물젖은 눈으로 '없습니다.주님.' 하고 제가 대답하자 '그럼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글로리아 예배만을 남겨 놓은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학기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우크라이나 친구 올라를 이번 학기 단 한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가대 반주, 목장과 향수예배, 제

삶과 일이 바쁘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계속되는 항암치료로 산책과 제 2외국어인 영어로 대화하기 힘들어한 올라가 치료가 끝나 컨디션이 괜찮아지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중보기도팀에 올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요청을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서 잠깐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밝고 에너지가 있는 올라를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드디어 12번의 항암 치료를 끝냈고 이제 회복을 위한 면역체계 치료를 내년 여름까지 3주에 한번씩 받게 된다고 얘기하며 저한테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냐고 연락하려던 참이라며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눈썹과 빠진 머리가 나기 시작한다며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산책하며 헤어질때 저와 한국교회의 친구들이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줬고 정말로 올라는 눈을 반짝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누군가 '땡땡'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며 너무 예쁜 라즈베리 케익을 들고 고맙다며 올라가 전해주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제 삶에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앞으로도 완전히 올라가 잘 회복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정에 복음이 잘 전하여지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와서 보라’ 외침의 준비

향수 말씀카페 충성 강미미

‘빛과 생명이신 예수그리스도 요한복음’이라고 적힌 말씀카페 교재를 표지를 보면서 이번 학기에는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보고 싶은 소망을 품고 소그룹에 참여했다. 몇 년 전에 큐티를 통해 요한복음을 공부한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또 어떠한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깨우치고 깨질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 기대감은 <1과 생명의 말씀> 공부부터 기대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나의 마음을 채웠고 1번 문제의 질문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으며, 이것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의 대답을 통해 내가 지난 몇 년 간 해온 큐티와 말씀 공부의 목적과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이미 알고 있는 대답(복음 전파)에 아직도 발을 떼고 있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직 나의 때가 아닌 듯하니 말씀공부나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2과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예습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요동이 생겼다. 1장 39절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안드레와 요한과 형 안드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 교회의 반석이 된 베드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부른 빌립과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나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의 모습과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과 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아직 나의 때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깨달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모태신앙인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 후로 한번도 의심하지 않고 나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 귀한 은혜를 나만 누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또 보게 되었다. 내가 적극적인 자신이 없으면 그저 ‘와서 보라’라고만

말해도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텐데 이 간단한 말을 두고 그동안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왔구나 싶었다.

3과부터 예수님의 표적을 공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를 위해 어떻게든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며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울렸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들이 자꾸 떠올랐고 신기하게도 우연히 길을 지나다 그 양들을 만나게 하셨다. 아직도 나는 자신있게 '와서 보라'라고 말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잊지 않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기회가 될 때 '와서 보라'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내가 먼저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빛에 물들어 가면 나와 이어져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 가면서 결국 천국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이어간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향수 말씀카페 충성 오애란



예수님은 믿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누리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향수를 통해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기 다른 날,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거처와 삶 자체를 보여주시고, 시몬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 칭하시고, 빌립을 발견하시고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다니엘을 보시고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이미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귀한 믿음의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신앙적인 열등감이 늘 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이미,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나의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을 보이셨듯이, 물질 자체를 바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은혜, 갚지 않아도 되는, 거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이웃으로 감당해야하는 곤고하고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일방적인 은혜의 결정으로 날마다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어두움을 밝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행복의 기준을 여러 번 바꾸며 살았던 나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네 남편이 어디있느냐?”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 즉, 나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비참한 부분까지 아셨습니다. 빛으로 나의 마음을 비추시니,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죄들이 생각나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니,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나에게 마음을 드려 예배하라고 명하시고, 막혔던 예배가 다시 진정으로 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몸부림치며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기 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을 하며, 이웃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나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또, “내가 이웃보다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라는 나의 물음에, 이 세상에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점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맹인 같은 나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믿는 자매님들을 통해 예수님의 옷자락에 먼저 고리를 걸어주셨습니다. 티끌 같은 작은 순종을 했더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매 순간 은혜 없인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제게 알려주신 정답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추기와 사춘기의 행복한 동거법

향수 청소년 자녀 교육 이재자

착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내 아들이 아닌것 같은 낯선 모습들에 적응하기 힘들어질 때 즈음에 이 수업을 만나게 되었다. 나의 사추기 갱년기와 맞부딪치는 아들의 사춘기는 변덕심해진 기분과 게임으로 인해 보이지않는 기싸움이 일어나면서 나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마침 이 수업이 있음을 어느 자매로부터 소개받고 녀석을 잡을 방법이 있겠지? 하는 기대의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 그런데 첫수업에 들은 권사님의 첫마디는 “아이를 어떻게 고쳐보아야지 하는 맘으로 오신분은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라고 내 마음을 꽤뚫어 보신 듯한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그렇게 내 기대와는 완전 다른 뜻밖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에 수업신청을 한 것에 살짝 걱정이 드는 순간, 덧붙이시기를 “엄마 아빠가 바뀌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다. 뭔가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어렵듯이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이가 기대에 차지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매몰차게 밀어내며 아이를 바꾸려고 했던 나를 보게 했다.

수업은 나를 바꾸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었고 아이에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낙인효과가 있는 언어가 아닌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으며 긍정의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는 말들을 삶에 실천하는 것이었는데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로서 좋은 말을 쓰는게 어려울까? 싶은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숙제를 시작했다. 그런데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던 숙제가 생각보다 실천하기가 힘이 들었고 내가 평소에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써왔다는걸 알게됐다.

그래서 어떨 때는 숙제가 다소 힘들기조차 했다. 실천하는 숙제를 하다보니 문득문득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에게 반응하는 내모습을 좀더 자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숙제를 의식하다 보니 아이와 부딪칠 때마다 바로 반응하며 소리치기보다 한 템포 떨어져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먼저 살피주게 되었고 지시보다는 아이의 선택을 먼저 존중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다보니 크게 화낼 일의 횟수가 좀 줄어들드느 걸 느꼈다.



수업을 따라가며 하루에 한가지라도 실천하려고 하면서 문득 하나님을 생각하게도 되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감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대로 겪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이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공감해주고 아이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인격적인 방식이랑 같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첫시간에 권사님이 말씀하신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신 것의 의미를 좀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가 잘 해 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하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이 바른 양육임을.

이 수업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내용을 실천해보는 면에서 평소와 다른 나를 훈련해야해서 좀 힘들었지만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해쪽으로 조금 달라졌고 무엇보다 나의 양육태도를 바로 보게하는 보람있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하다. 일일이 숙제에 조언해주시고 시간 내내 가르쳐주신 권사님께도 너무 감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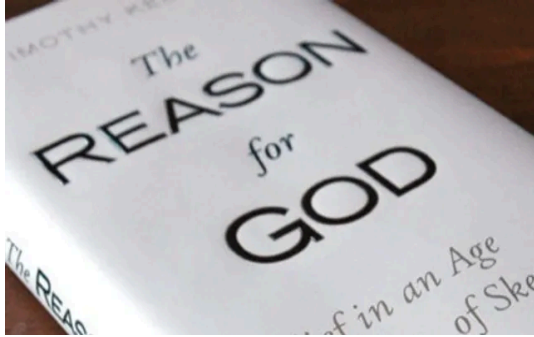
나의 이성이 본성을 이기지 못할 날이 더 많겠지만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날들이 많아서 나를 바꿈으로 사춘기 아들과의 동거가 더 행복해지기를 기도해 본다.





질문해도 된다고요?

향수 북카페 정신애



사실 매 학기 향수가 시작될 때 이번엔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봄 학기 향수를 마치고 서번트 모임에서 모든 리더님과 팀장님들의 소감이 감동이었지만 북카페 리더 권사님께서 인도하면서 너무나 즐거우셨고, 본인에게 딱 맞는 클래스를 찾게 되신 것 같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

호기심이 몽글몽글 올라오며 그 흥분이 전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이 내용은 좋은데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자매들의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왔고, 마주치면 인사만 드릴 뿐 개인적인 친분도 없던, 더군다나 카리스마 넘치는 권사님 반에 내가 자진해서 들어간다는 게 겁이 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권사님 같은 분을 설레게 한 것일까? 팀 켈러 목사님의 ‘The Reason for God’,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책을 빨리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날, 리더 권사님께서 프롤로그의 한 단락을 읽어주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의심’에 주목하면 좋겠다. “의심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이나 마찬가지로. 태평하게 열심히 사는 크리스천들은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해서 믿음의 이유를 둘러싼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지 않는다. 그러나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영리한 회의주의자들의 탐색적인 물음에 부딪치면 그제야 스스로 무방비 상태임을 깨닫는다. 오랜 세월을 걸쳐 내면의 의심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 회의는 반드시 긴 성찰을 거쳐 정리해야 한다. 신앙인들은 의심을 자각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다. 제 것만이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의 의심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며 ‘질문해도 된다고요?’ 라는 질문과 함께 마음 속 깊은 응어리 같은 것이 훅 올라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질문하며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북한의 아이들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랑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하나님! 정말 당신은 계시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물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질문들을 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으로, 책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질문하고 씨름하는 것을 멈췄었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많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긴 성찰을 통해 정리하는 그 터널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섰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그룹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믿음이 있다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게 덕이 안될 것 같아서였고, 이걸 질문을 의심으로 취급하고 허락하지 않는 교회의 문화와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날 이 응어리가 ‘질문해도 된다구요?’라는 질문으로 토해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책에는 질문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평하게 열심히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해서 믿음의 이유를 둘러싼 까다로운 질문들을 던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저의 영적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었고, ‘오랜 세월을 걸쳐 내면의 의심에 참을성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다. 회의는 반드시 긴 성찰을 거쳐 정리해야 한다.’는 경고와 도전 앞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응어리는 제가 만든 것이었고, 사실은 제가 바쁘고 무관심하여 더 이상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며,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순간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이 선한다면 어째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는가?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인가?
 교회에 다니는데도 왜 불의한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 낸 것 아닌가?
 성경의 기적을 어떻게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가?



질문하는 이들을 향한 팀 켈러 목사님의 변론과 죄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에 관한 주장을 두 분의 리더 권사님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씨름하는 4명의 자매님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 모든 질문을 이해하여 저의 언어로 정리하지 못했지만, 북카페 클래스는 저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닐까 싶을만큼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은 정말 즐거웠고, 매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새롭고 감사했던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많은 대답을 듣고도 이해되지 않았던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독립된 인격과 연합과 사랑을 춤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 설명을 그려보라는 권사님 말씀에 머릿속에 그리던 것을 책 빈 여백에 그리며, 미술관에서 보았던 ‘dance step’이라는

작품과 겹쳐지는데, 정말 댄스잖아! 하고 소리를 지를 뻔 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는 질문도 기억하고 계시고, 대답해 주시려고 때를 기다리시는 ”신애야! 하나님 믿을 준비가 되었니? 라고 의심에서 믿음으로 가는 터널 입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도폭발 1단계 훈련을 마치고

글 | 김윤범

전도폭발 훈련을 처음 권유받았을때 전도 폭발 훈련 이름이 불편했습니다. 또한 충분히 교회에서 말씀 교육, 그리고 선교 훈련 등도 받았었기에 따로 전도 훈련만을 받아야 하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많은 분들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고 또한 나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내와 같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울 것이 많다고 하시고, 외우는 것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수료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도 됐었습니다.

13주 훈련은 시작되었고 바쁜 일상 가운데 한주 한주 진행되는 교육과 현장 훈련은 저에게 도전이 되었지만, 외우기 위해 반복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저를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였고, 매주 복음 전도 현장에서 영혼 구원의 기쁨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기억나는 현장 훈련 체험을 나눕니다.

교회에 출석한지 얼마되지 않은 형제인 두 youth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쯤이 아닌 첫 대면 훈련이어서 더 긴장되었습니다. 외운 복음제시가 그때까지 입에 붙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될지, 한국말을 잘 이해할지 생각도 복잡했습니다. 제 긴장과 어색함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벽이 될까봐 긴장도 되었고 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떨림으로 외운 복음 제시를 전하였고, 숙련된 훈련자 두분께서 이어서 구원받는 참 믿음을 소개하였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두 형제는 나란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몸의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감격과, 기쁨이 그 방을 가득 덮었습니다.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참 부족한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때를 언던지 못언던지 전하려는 전도 훈련은 정말 유익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 10월초에 쿠르디스탄 단기 선교로 이라크 북부를 갔었습니다. 일정 중 하루, 저녁에 거리전도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28살 쿠르디 무슬림 청년, 조세프를 만났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 땅에 갇혀서 절망하며 살고 있었고 소망을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전 제가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참 소망이 되셨는지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간증하는 중에 그 청년의 눈에서 참 소망에 대한 갈망을 보게 됐습니다. 이어서 전도 폭발 훈련에서 외운 복음 제시를 서툴지만 영어로 그리고 다시 아랍어로 통역되어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고자 하며, 이를 위해 오신 참소망되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청년의 눈가가 축축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청년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참 소망을 찾던 청년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복음서를 읽겠다고 하여 패트릭 선교사님을 소개하였습니다. 투박한 통역이지만 복음의 메세지는 언어를 넘어, 나라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전도폭발 훈련 13주가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듣는 것이 좋다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외우는 것이 힘들었지만, 아내와 함께 들으면서 많은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고 연습할 때 서로가 대상이 되어서 복음 제시를 연습하기에 한결 수월하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랜 긴 시간 동안 같은 주제로, 그것도 오직 복음만을 같이 서로 웃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외운 복음을 계속 잘 때도 산책할 때도 운전할 때도 연습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실 때 준비되어 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전할 기회를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그가 성공시킨 그 핵폭탄으로 성공의 기쁨은 뒤로하고 인류를 멸망시킬 무기에 대한 두려움에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살리는 복음 프로젝트에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복음의 폭발력은, 대륙을 넘어, 언어/문화/종교/국경을 넘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고 무수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고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 엄청난 영적인 폭발력은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오펜하이머의 핵폭탄보다 상상도 못할 위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입니다.

13주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참아주시고 지도해 주신 훈련자 분들께, 잘 외울 수 있도록 팁을 준 아내에게 그리고 전도폭발 훈련을 권면해주신 집사님들께, 전도폭발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놀라운 영혼 구원 사역에 초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고

글 | 이미숙

민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교회, 예배, 찬양은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려면 편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도에 관해서는 늘 남의 일 같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고 엉뚱한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해야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해야하는 교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매년 전도폭발 수강생 모집 광고가 나올 때마다 쉽게 마음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도 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지 못하는 내성적인 내가 전도를 해야한다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학기에 어느 권사님께서 전도폭발 방문전도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preview를 보고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서 줌미팅에 들어갔습니다. 50년 이상 신앙인으로 살아온 저는 그 모임에서 생전 처음 영접 기도를 했고 새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쁨이 이번 훈련에 등록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요.

전도폭발 훈련은 주중에 한번 조별 모임으로 만나 경험이 많은 훈련자 분들의 시범을 보면서 배우고 여러 경험을 나눠주면서 친밀함으로 10번의 현장 전도를 하고, 매주 목요일엔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서 방문 전도 보고와 교과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훈련을 쌓아갑니다. 첫번째 전도대상자를 만나 복음 제시를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아 이것이 진짜 통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몹시 떨리지만 혼자 아니고 함께 하기에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명의 10대 학생들에게 복음 전할 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노방전도에서 만난 두 분의 멕시코 분들은 우리의 복음제시를 끝까지 들어주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주었을 뿐만아니라 처음 만난 우리에게 기도제목도 나눠주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전도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던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되어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2주 동안 열심히 1단계 강의해주신 두 집사님과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잘한다 잘한다 자신감을 부어주면서 함께 현장 전도에 참여한 두 훈련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 전도폭발 훈련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훈련생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전도폭발 훈련으로 인도하시고,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기 스페인어 전도훈련을 마치고

글 | 황애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1:8)

이번에 1기 스페인어 전도 훈련을 마친 황애자 집사입니다. 몇년 전 파나마와 과테말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결심한 것은 미국에 돌아가서 꼭 스페인어 공부를 하리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몇 번 책을 사서 독학 하기도 했지만 번번히 몇 주 후면 실패로 돌아 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박기홍 집사님의 스페인어 기초반을 통해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최창섭 안수 집사님과 스페인어 전도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말로도 아닌 낯선 스페인어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만 2023년 콜롬비아에서 통역이 필요했던 것을 생각하며 2024년에 단기 선교 가서는 내 스스로 복음 전하고 소통해 보리라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문법, 시제, 여성, 남성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이 수두룩한 전도 내용을 외우기는 60살이 다 되어 가는 저에게는 너무 무리였습니다. 책상과 거실에 전도 훈련 암송 구절 내용을 놓고 수시로 외우기 시작하니 서서히 암송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5개 손가락을 이용해 전도를 하는데 엄지는 영생, 검지는 인간, 중지는 하나님, 약지는 예수님 그리고 새끼 손가락은 믿음으로 암송하고 영접기도를 암송했지만 제일 중요한 영접 기도는 너무 헛갈렸습니다. 이러다가는 히스페닉 사람들이 영접기도 따라 하다가 웃고, 실망하며 분위기 흐리게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수시로 들어 포기할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용어이지 하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암송 훈련을 하고 5번째 수업부터는 가까운 Great Mall에 가서 현장 전도 실습 훈련을 하였습니다. 최창섭 안수 집사님의 유창하고 능숙한 복음전도 제시로 몇 명의 멕시코인들이 영접 기도하는 것을 보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는 흥기출 집사님과 저 그리고 최창섭 집사님이 나누어서 복음 전하고 또 그 다음 주는 흥 집사님과 제가 나누어서 하고 나중에는 저 혼자서 하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분량을 늘리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어서 특별히 미국 사람들도, 아시안계 사람들도 구분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 현장 전도 실습 장소인 Great Mall에서는 신기하게도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솔직히 히스패닉 사람들을 일터에서 만나도 관심이 없었고 영어든 스페인어든 전도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 생각하니 모든 사람들이 복음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생각나며 이래서 그 분들이 항상 입술에 복음을 달고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할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스페인어로 복음 전도를 할 때는 잠깐 휴식을 하는 중에도 시간이 아깝고 계속 혼자 앉아 있는 히스패닉권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용기를 내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은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기다리는 순간은 무척이나 길고 영접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속으로 혼자 저절로 하게 되었고 영접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는 너무 감사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의 손을 저절로 잡고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 하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전도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분들이 잘 주님을 믿도록 복음에 관한 소책자를 주며 이제 막 구원을 받은 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5분만 시간 내 달라는 말에 하던 것을 멈추고 서투른 스페인어로 하는 전도 내용을 기꺼이 들어 주어서 참 친절하고 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친근감이 더욱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음에 영접하겠다는 사람들, 카톨릭이라 영접기도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시라 믿으며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 하리라 다짐하고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얻고 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 추후 확인을 위하여 함께 초대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최 집사님을 보면서 그 연세에 저런 열정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1기 스페인어 전도훈련은 마쳤지만 일하면서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어디에서든 스페인어 복음 전도를 계속 하리라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Duolingo 앱 사이트 통해 계속 공부하여 중남미권으로 단기 선교 갈 때 그들과 예수님에 대해 말 할 수 있기를 다짐해봅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에 계속 노력하며 2 기 스페인어 전도 훈련도 계속하리라 결심해봅니다. 미국에 살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님을 몰랐다면 스페인어로 복음 전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텐데 전도의 지경을 넓히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사역 중보기도 영혼의 호흡

글 | 정종규

작년 수요일 새벽기도 예배시간에 중보기도팀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저도 가정사역 중보기도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와 함께 말씀묵상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꾸준히 중보기도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요일예배를 드리며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 더 큰 힘과 위로가 될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보기도팀에 속해 기도하다보니 가끔하던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었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목장식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저의 누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어느정도 생활화 된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신앙인이었던 제가 갑자기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절 위해 오래 참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누군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중보기도를 통한 많은 열매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늘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는 듯 조금씩 하는 조금함이 있었는데 요즘 제 자신을 보면 예전에 비하면 많이 차분해진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두 기도생활을 통해 찾아온 변화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중보기도의 결실은 영혼구원이 아닐까 합니다. 중보기도 팀에게 저희 누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린 것이 올 봄인데 이번 가을에 미국 방문중이던 저의 누나에게 제아내와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누나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기도해온 중보기도 팀원들, 그리고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기도의 자리에서 만난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감사를 올립니다.

“너희 중에 두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18:19)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사역 중보기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글 | 원은경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23:6)

12년 전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처음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레마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아버지와 신실하게 함께하시며 치유해 주셨고, 그해 기도 응답 감사의 밤에 간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후 건강하게 생활하시던 친정아버지는 2021년 4월부터 갑자기 오른쪽 하반신 통증으로 밤마다 힘들어하셨고 그 원인이 척추협착증이라는 의사의 진단으로 척추 수술을 받게 되셔서 아버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뉴비전 금요성경공부 시편 묵상기도 클래스를 택하여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친정아버지의 힘든 암투병 여정을 간병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생사화복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며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묵상하며,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을 가지고 나아가 아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영적 예방주사를 주셔서 아버지의 통증의 원인이 척추협착증이 아닌 12년전 직장암 치료를 위해 받았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생긴 악성종양인 것을 찾게 됐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골반에 자리 잡고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으실 당시에는 뉴비전 성경공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클래스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허락된다 해도 모든 것 위에서 궁극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선하신 예수님이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대수술을 잘 이겨내시고 그 힘든 재활치료도 한 달 만에 이겨내시고 집으로 퇴원하시게 되어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안도와 기쁨의 시간도 잠시, 퇴원한 그다음 날로 응급실을 통해 다시 입원하시게 되었고, 여러 수술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재수술과 많은 시술들을 받으시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종양은 다시 급속히 자라났고 종양으로 인한 통증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잦은 입원 생활을 통해 많은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그분들의 영혼을 축복하며 모든 의료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밤에는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계시는 아버지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며 아버지를 의탁드리는 기도로 잠자리에 드는 일상들을 보내던 중에 하루는 지친 마음으로 주님께 원망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들은 주님의 도구일 뿐이기에 참 치료자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과 치료과정을 주관하여 온전히 치유해주실 줄 믿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고 막으실 수 있었는데 왜 주님을 사랑하시고 충성스럽게 섬겨오신 아버지께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지요?"라고 울부짖는 순간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육체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엄청난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였고, 이런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겪는 고통은 잠시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죄도 질병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로 붙들어 주셔서 즉시 원망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며 평안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도 나날이 많은 고통 가운데 육신과 정신이 쇠약하여졌지만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변함없이 또렷하고 은혜로운 기도를 하셔서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했는지요.

아버지는 2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고 완주하시어 올해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잘 알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투병하시는 분들과 가족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더 공감하며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셨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예배의 삶과 복된 죽음으로 친정아버지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늘 본향 천국에서 사모하시던 주님 얼굴을 보며 영원히 예배하는 기쁨과 영생의 복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정사역 중보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글 | 손명화

2022년 봄학기였습니다. 저는 부족했지만 매주 향수 말씀카페 온유반 소그룹 모임을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온유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작은 간증들로 서로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던 믿음의 체험들을 나누는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었고, 새로운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소그룹 시간을 기다리는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년 봄 학기 향수모임 중간 즈음, 자주 느껴지는 불편한 신체의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는, 간단한 산부인과 진료의 핵심적인 검색을 생략하였고, 그 짧은 대면 방문 시간으로 당시에 체험하고 있었던 저의 불편한 증상들이 산부인과와는 상관이 없다는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봄 향수와 “사별가족 회복모임 GriefShare” 여름학기를 마치면서, 미루어오던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그저 한국 의료 검진 여행을 통해 평판이 자자한 한국의 의료 검진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보고 싶은 마음과 미국에서 받은 진단에서 멈추지 않고, 검사를 더 받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되돌아 생각해보니 이 역시 저를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 위해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지 이삼 일 후에 지인을 통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분이 전화를 주시며, “4일 후 금요일 저녁 7시부터 밤 12시+ 까지 진행될 수 있는 긴 수술을” 해 주시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의 수술을 담당할 의사는 한국 의료시스템에서도 방송과 지면을 통하여 상당히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산부인과/수술 의사였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Follow Up을 위해 한국에 3달 더 머물러야하는 제한이 있었기에, 또 다른 길을 기적같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제안으로, 미국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훌륭한 의사로부터 신속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서야 발견할 수 있도록 예측치 못한 뜻밖의 과정으로 주도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기에 그 사랑에 감탄과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 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제 2의 치료 행로를 미국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인도해주셨고, 저는 현재까지 완벽에 가까운 “2022년 봄에서 2023년 봄까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랑과 영광을 2023년 가을 기도응답의 밤 수요 예배 간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끊임없는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주심으로 치유의 장막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모든 절차를 시작부터 회복까지 미리 준비하시고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술 후에도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영양 음식들을 준비하시고 배달해 주셨던 정성스러운 손길들, <NVC 만나 사역>에 헌신해 오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가까이에서 항상 기도와 음식으로 앞장서 주신 집사님, 권사님들, 또한 상상하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의 음식을 준비해주시고 배달해 주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신 모든 뉴비전 가족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저의 삶은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으로 나누며, 새로운 은혜로, 또 다른 선택의 문이 열리어 저를 주님의 사역에 사용한다 하실 때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침례 간증문

글 | 이도규 (디모데 뉴비전스 목장)

침례란 저에게 많이 무거운 의미입니다. 모태신앙도 아닌 제가 지금 교회를 4년째 다니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마음이 완전하진 않습니다. 사실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고 다시 새로 태어나는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것이고, 이때까지 해왔던 죄 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지르면 안된다는 압박감도 느껴지고 죽은 뒤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침례를 받으려는 생각은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작년과 올해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고, 그럴 때마다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힘들 때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조금 더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육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임을 믿고 이 마음 계속해서 변치 않도록 주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침례 간증문

글 | 이규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15:16]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자랐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16년 동안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16년 동안 침례를 받았으나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저는 고넬료같이 성령 침례를 통해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갖는 것이 물 침례를 받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해가 지날수록 확고해져 갔고 금년 2월 목자로 섬긴 첫날에 저희 목원들과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물 침례에 대해 굳은 회의감을 갖고 2023년을 시작했지만 금년 상반기 금요 성경학교1단계를 통해서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수 십 억 명 중의 한 명인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셨으며 또 목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성령 침례의 확신이 들기 전까지 물 침례를 거부하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을 택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닐까?”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과 고민을 거듭하면서 저는 물 침례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하신 큰 계획에 순종하는 행위이며 물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세우심을 인정하는 행위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성령 침례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침례의 확신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제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물 침례를 받으려 합니다. 저를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주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침례 간증문

글 | 김윤희

저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많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알기 싫다는 감정이 컸고, 그로 인해 신앙이 오히려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이 교회를 찾아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신앙에 진심일 수 있는가, 어째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수 밖에 없던 사람이 저, 김윤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신앙 생활을 짧습니다. 그저 처음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라는 세속적인 이유를 대며, 교회를 찾아왔고 그것을 이어가려고 했던 저희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희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질문들이 어느샌가 저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TM 을 참여하고 신앙에 대해 배우면서, 점점 저의 마음에 있어서도 신앙과 교회라는 것이 그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하나의 계기로써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지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들이 그저 허구의 말들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이며, 내 인생의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임을 이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침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들었던, TM에서 배웠던, 침례의 의미.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신앙 생활의 기간과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 한다는 사실들이 저에게 있어서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맞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고, 그것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전해준 대답과 나름의 기도와 생각들이 정리되며 저는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이 말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나 자신의 삶에 있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온전히 그 분께 바칠 수 있냐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말. 저는 그 말에 이제는 과감히 “네”라는 대답을 할 겁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런 사람이 크리스천 이구나 하며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어딜 가든, 이 나의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 침례를 받는 각오인 것 같습니다.



침례 간증문

글 | 박상철

저는 한국에서만 자랐고 미국에 온 지 9개월 쯤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교회만큼은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숙집 주인 분께서 3~4번 정도 계속 추천을 해 주시기에 마음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한 형제분을 만나 뵙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첫째,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을 정말 진심이네. 뭘 믿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고 둘째, 나누는 자리에서 한국 사회에서 자라 편견과 안 좋은 시선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저에게 뉴비전교회의 목사님, 형제, 자매 분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저는 예배 때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나눔에서 솔직한 감정을 다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미국에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나만 단 둘이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저 자신에 대해 솔직하고 진심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며 성경에 대해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TM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과 역사하심에 대해 배우며 저의 일상생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질문하고 나누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구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구나. 나는 여태까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 하는 일 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마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 뒤에 든든하게 저의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앞으로 걸어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있어 주시기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아갑니다. 제가 침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국이라는 먼 땅까지 불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제가 살아 온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사람들을 보며 좋지 않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던 저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자연스럽게 저에게 흘러 들어와 주셔서 지혜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많이 느낍니다.



TM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 삶을 돌아보며 역사하셨던 주님의 손길들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힘든 시간, 기쁜 시간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저의 마음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침례를 통해 제 마음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ove Milpitas 2023

글 | 주진호

Love Milpitas 2023 was an opportunity for our New Vision church members to show Jesus' love to our neighbors, namely, those who live in Milpitas. Through nine different projects, our church, along with other churches in Milpitas, were able to participate in many projects, including painting playground walls of Milpitas elementary schools, repainting children playground benches, cleaning up parks and installing a book exchange donation box. One of the more amazing projects was the drawing and painting of an enormous eagle mural on one of the playground walls. The finished product was the painting of a beautiful eagle mascot of a Milpitas elementary school on its playground wall. It was a testament to what detailed planning, hard work and love for our neighbors can accomplish.

I led one of the nine projects. It was the distribution of emergency notification flyers on behalf of the Milpitas fire department. Along with 17 other volunteers, our group separated into three teams and distributed these important notification flyers at three separate locations throughout Milpitas. We were able to speak with many Milpitas residents about the importance of signing up for emergency notifications and answer their questions. By signing up for these notifications, the recipients would receive immediate notifications, via their phones, regarding many emergency situations in the Bay Area, including earthquakes, wild fires and road closures.

Through Love Milpitas 2023, I personally experienced wonderful fellowship with other volunteers and an enjoyment from volunteering for a good cause. More than anything, it was an opportunity to show Jesus' love to my neighbors. I very much look forward to Love Milpitas 2024!!



Love Milpitas 2023

글 | 강신웅

저는 작년 2023년에 미디어팀에 새로 만들어진 미술팀의 팀장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체계적이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기존 디자인팀의 하던 일과 제가 처음 이 자리에서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의 상황과 너무 다르고 또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맞지 않아 애매하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디어팀을 담당하고 계신 강석운 전도사님과 줌미팅 혹은 가끔씩 개인적 만남을 통해 들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전체 theme이나 미적 concept 등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비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를 아이디어에 대한 대화만 나누다가 어느 날 러브 밀피타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에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페인트를 할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석운 전도사님은 이것이 어쩌면 미술팀의 공식적인 첫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involve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갑자기 받은 의뢰라 좀 당황스럽고 또 페인트 작업은 벽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콘셉트도 모르고 재료가 얼마큼 필요할지 등등 해서 너무 난감했습니다. 20대 팔팔했던 피가 끓던 시절에도 딱 한 번 벽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기억이 30년 만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미 마음 속으로는 80프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일정 시간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바쁜 회사 일과 아무도 이 일에 관여하지 않고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는 과정인지라 그 부담감은 엄청났습니다.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스케치는 손도 안 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김원철 집사님의 바울서신 수업을 듣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항상 수업을 밀도있게 하시는데 가끔씩 본인의 생각이나 느낀 점 등을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일로 인하여 고민이 너무 많던 차에 집사님께서 수업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 하세요”

성경공부를 하다가 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 이 느낌이 뭐지? 마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성경공부 시간을 마친 후 곧바로 망설임 없이 스케치와 완성된 칼라링 밑그림 작업을 하였고 그 다음 번 회의에서 스텝분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 공유를 한 이상 되돌아갈 수 없기에 매일매일 러브 밀피타스 프로젝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의 마음가짐도 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어 나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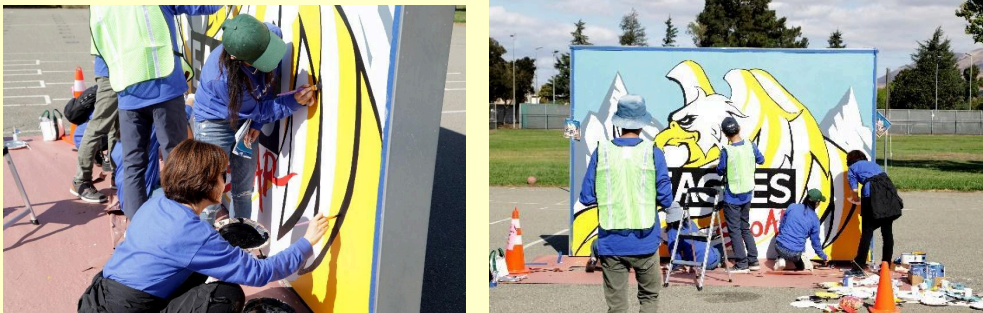
하지만 그 holy 한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벽에 직접 스케치를 하러 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행사 당일엔 곧바로 페인트를 해야 하기에 아내와 저는 둘이서 1주일 전 먼저 스케치를 해야 했습니다.) 스케치를 하는 날, 너무 더워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땀이 뻘뻘 나고 벽 사이즈가 너무 커서 눈대중으로 하기엔 스케치에 무리가 있어 가져간 새끼줄로 일정 사이즈별로 일일이 사각형 그리드를 만들고 그 후에 연필로 스케치를 아내와 같이 했습니다. 그늘 없는 상태에서 3시간을 쉬지 않고 그려 나갔습니다. 솔직히 중간에 살짝 요즘말로 현타가 왔습니다. 내가 왜 이걸 퇴약실에서 하고 있지? 스멀스멀 사탄의 장난이 시작될 무렵, 프로젝트 전체 리더이신 구자익 집사님께서 격려차 전화를 주셨습니다. 고생이 많다고 말씀해 주시고 일정 때문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전화너머로 집사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집사님께서 가끔씩 전화와 텍스트 메세지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계속 갔던 거 같습니다. 집사님과 통화를 끝낸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머지 스케치를 완성하고 아내가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그늘에서 먹으며 대학 시절 생각난다며 서로 웃으며 작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채색 작업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저는 당일날 또 사탄의 장난에 시작 전부터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이 분주해지고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페인트 작업은 모두 처음 보는 발룬티어들과 함께 3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작 전부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합을 맞혀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3시간이 완성하기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말없이 지켜보던 아내는 5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저를 끊임없이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본인도 저만큼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초반 30분 정도 지났을 때 너무 난감했습니다. 너무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남은 시간 2시간 반... 목이 타고 극도로 긴장이 되어갔습니다. 1시간 경과... 2시간 경과... 지쳐 있는 저에게 아내가 뒤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 내에 완성해야 된다는 조바심에 그림 그릴 때 항상 뒤로 나와 확인하는 기본 과정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뒤로 나와서 전체를 보는 순간 너무 몽클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었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너나 할 거 없이 손에 붓을 놓지 않고 페인트 칠해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건 나의 개인 아트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왜 저것이 내 아트작품이라 생각했을까? 지역 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려는 한 분 한 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작품인 것을... 너무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저만큼의 인원으로 저만큼의 벽

사이즈를 주신 거고 저만큼의 시간이면 모든 것이 끝나 있을 것인데 나는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느낌, 나만의 계산을 하니 그만큼 계속 불안했던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모두 완성이 되어 다 같이 단체사진도 찍고 멀리서 완성된 벽화를 보니 참 뿌듯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후 짐을 챙기고 학교를 나서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 스몰 토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주에 아내와 제가 미리 스케치를 한 걸 보고 아이들이 놀라며 누가 이걸 한 거냐고, 이거 칼라링도 할 거냐고, 왜 이걸 하는 거냐고 등등 많은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1주일을 너무 신나 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벽화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해주는 거고, 다음 주면 멋진 칼라링도 되어 있을 거란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길,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완성된 걸 보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할 걸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모든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몽클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구나. 다시 한번 집사님의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좋은 일 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 장식입니다. 추수감사절 즈음해서 운주성 목사님과 장식팀과 미팅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운목사님과 처음 만남이었고 장식팀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고 앞으로 미술팀과 같이 협업을 하자는 내용의 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니 크리스마스는 제대로 해보자는 식의 내용으로 첫 미팅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후에 시간이 어느덧 흘러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오게 되었음에도 어느 누구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본당에 트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하지? 하며 실망을 하고 또 이렇게 올해도 아무 장식 없이 트리만 덩그러니 있겠구나 하고 내년을 기약하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본당의 장식을 담당하던 분이 떠나시고 그 부재로 인해 몇 년간 아무런 장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워하던 차였습니다.) 그렇게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성탄절 1주일 남겨둔 주일에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며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우리 성탄절 장식하자.” “아무도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너무 오버하는 거 같잖아.” “오바 좀 하면 어때, 우리

교회가 올해도 저렇게 썰렁하게 지나가는 거 너무 싫어” 그렇게해서 윤주성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여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장식을 해 보겠다고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자 좋아하시며 교회에서 만나자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왜 연락을 안 하셨냐고 물어보자 오히려 목사님도 저랑 똑같이 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한 사람만 마음을 바꿔도 오해가 풀리는구나, 한 사람만 의지를 갖고 있으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아내는 부랴부랴 스케치를 하고 목사님께 보여드린 후 이진수 담임 목사님의 컨펌을 받고 곧바로 부랴부랴 재료를 샀습니다. 주일에 시간 맞춰 장식을 하려면 토요일에 가서 붙이는 작업을 해야 했기에 시간이 터무니 없이 부족했습니다. 평일에는 둘 다 일을 해서 재료 살 시간도 부족해서 금요일 저녁에 매의 눈으로 스캔하여 빠르게 구입하고 집에 와서 작업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래도 연말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아내와 둘이서 캐롤을 틀어 놓고 그리고, 자르고, 붙이고, 재고하기를 반복하며 새벽 2시가 넘게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마나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를 위해 캐롤을 틀어 놓고 교회 본당 장식을 위해 이런 작업을 하는 영광을 몇 명이나 맛보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피곤한 줄 모르고 둘이서 열심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아내와 저 둘이서 하나하나 벽에 붙이고, 구도 잡고, 뒤에서 확인하며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작업이 모두 끝난 후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주일이 왔습니다. 저와 아내가 장식한 실루엣 아트가 이미 배치되었던 트리와 성가대, 찬양대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번갈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각각 어우러져 성탄절 느낌이 물씬 나서 아내와 저는 둘만의 비밀 미소를 띄며 너무 기분 좋게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에 쫓겨 훌륭한 퀄리티로 만들진 못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사이에 아내와 단둘이서 만든 것 치고는 나쁘지 않구나, 그래도 주님이 만족스럽진 못해도 귀여하실 정도는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항상 주님은 제 옆에 계십니다. 두렵거나 힘들거나 의심스럽거나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Love Milpitas 2023

글 | 구자익

2023년 <러브 밀피타스> 프로젝트 준비과정을 뒤돌아본다. <Love Milpitas>라는 Non-Profit 단체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위치한 Milpitas 시의 이웃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Outreach 하기 위해서 2023년 10월 21일에 Volunteer Day 행사를 했다. 뉴비전교회와 중국 교회인 Crosspoint 와 Ark Baptist, 그리고 또다른 비영리단체 Milpitas Cares와 협력하여 함께 치루었다. 2023년에는 밀피타스시와 경찰서, 소방서, 지역 초등학교에서 요청한 9개 프로젝트에서 4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자원봉사 작업을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10월 21일 아침 8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 킥오프 랠리를 시작으로 9시부터 밀피타스의 9개 프로젝트 장소로 나누어 나가서 봉사를 했다. 랠리에선 밀피타스 시의 Planning Commissioner인 Dipak Awasthi 와 Milpitas Cares 대표 목사 Dan Griffiths 의 축사와 감사의 인사가 있었다.

밀피타스 시의 경찰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순찰차 한 대를 보내주어 봉사자들과 자녀들이 차 안을 관찰하고 경찰관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밀피타스 시 소방서에서도 참석해 가장 큰 소방차 한 대를 보냈다. 이진수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랠리는 9시에 끝나고 봉사자들은 프로젝트 작업장으로 향했다. 9군데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에서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맡은 작업들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자원 봉사를 마쳤다. 이 행사의 미션은 신앙 공동체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커뮤니티를 서로 연결하고 참여하며 기부하고 봉사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며, 'Love Milpitas' 는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연결하여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9개의 프로젝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ilpitas 두 개 초등학교 운동장의 22개 핸드볼 벽 페인트
- 초등학교의 마스크트인 독수리 벽화 페인트
- 초등학교 Book Exchange Box 후원 및 설치
- 초등학교 Garden box 조성
- Milpitas City Park 5개 공원 청소
- 소방서의 Emergency Supply Container 외벽 페인트
- Milpitas 경찰서의 Emergency Notification Flyer 돌리기
- Milpitas 시청의 Children Playground Bench Repaint



Love Daly City

2022년 southern Baptist Convention 행사를 다녀오신 이진수 담임목사님이 Love Daly City 라는 project를 그곳에서 보고를 해서 들었는데 San Francisco 남쪽의 Daly City에서 그 곳 지역 교회가 Volunteer outreach 를 통해서 시와 경찰, 소방서, 시민들을 섬기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교회가 지역 사회와 어우러져서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교회가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린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Milpitas 시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Love Daly City 처럼 Love Milpitas를 해서 우리 교회를 알리고 이웃에 outreach 하자는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Love Daly City 행사를 주관했던 Bob Eusebio 목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Love Daly City의 volunteer day 행사 아이디어는 Love Modesto를 하는 단체에서 허가를 받고 따 온 것이라고 하면서 Love Modesto를 하는 Jeff Pishney 목사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다.

Love Modesto/ Love Our Cities Movement

Jeff Pishney와 그와 함께 사역하는 일꾼들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Love Modesto 는 2009년에 Modesto의 Big Valley Grace Community Church에서 시작되었다. Jeff 는 그 곳 부목사였다. Modesto 시는 그 당시 “in really rough shape”라고 했다. Love Modesto를 통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킨 이야기이다. “Churches, nonprofits, local and county government, schools, and business have come together in ways...” “Love Modesto has become the bridge to community engagement...” Love Modesto 운동은 크게 부흥하였고 주위의 작은 도시들에서도 Love Modesto에서 배워서 Volunteer Day들을 하기 시작했다. 섬기던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게 커지며 Jeff 는 속해있던 교회에서 독립해서 비영리 단체 Love Our Cities를 시작하였고 지금은 California 와 미국 전체뿐만 아니라 미국 밖에서도 Love Modesto를 보고 배우려고 견학을 온다. 우리도 Love Modesto Volunteer Day를 직접 보기 위해 견학을 갔다.

Steve and Grace Shin 집사 부부와 Daniel Lee, 그리고 내가 4월 29일 2023년 러브 모데스토 자원봉사의 날을 보고 체험하기 위해 모데스토로 1박 2일로 갔다. 약 30 명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보고 배우려고 견학을 와서 우리 팀과 같이 배웠다. 3명은 멀리 버지니아 주에서 왔다. 우리는 Modesto에 오기 전에 Jeff 와 그의 팀으로부터 여러 차례 Love Modesto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우리는 또한 Jeff가 저술한 책, <Love Our Cities>도 읽었다. 감명 깊은 이야기들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았다. 모데스토에 가서 자원봉사의 날이 펼쳐지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우리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4월 29일 토요일 동이 트기 전부터 나와서 시내에서 아침 집회를 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집회는 규모가 컸고 많은 사람들이 시내에 모여 거리의 많은 블록을 차지했다. 아침 집회에는 경찰, 소방서,

보안관, 시 여러 부서 등 많은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랠리에 나온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4월 29일에 80개 정도의 봉사활동 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다. 거리에는 프로젝트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군중은 오전 집회가 끝난 오전 9시쯤 빠르게 해산해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우리 교회에서 온 네 사람은 세 개의 다른 그룹으로 나누었다. 나는 운전자 존 에반스 (Jon Evans)가 3개의 프로젝트 현장으로 데려다 준 그룹에 합류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정원 가꾸기 상자를 만들고 있었다. 교장은 지역 교회 자원봉사자들에게 학교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구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보았다.

두 번째 프로젝트 현장은 레거시 얼라이언스 아웃리치(Legacy Alliance Outreach)라는 비영리 아웃리치 센터였다. 센터는 건물을 기부 받았는데, 건물과 그 주변은 많은 청소와 개선이 필요했다. 많은 자원 봉사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아웃리치가 주로 약물 남용 중단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러브 모데스토가 중요한 인맥과 자원 봉사자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복음 선교 예수 구원 (Gospel Mission Gospel Mission Salvations) 이었다. 자원 봉사자들은 주차장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지도자는 러브 모데스토의 도움에 감사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리더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주제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을 하는 사람들과 Jeff와 러브 모데스토 팀 사이의 신뢰이다. 나는 신뢰의 연결고리들이 모데스토에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과 기관들을 연결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Love Our Cities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맺고 Love Milpitas 라는 copy righted brand name 을 사용하고 Love Milpitas website을 만들고 지원 받기로 했다.

Milpitas Cares

Milpitas 지역에 있는 nonprofit 단체를 찾던 중에 Milpitas Cares 라는 Milpitas Pastors association 을 찾았다. Milpitas Cares는 Volunteer 활동들을 통해서 Milpitas 지역 사회를 지난 10년 이상 섬기고 있었다. Milpitas Cares 의 대표 목사 Dan Griffiths 를 만났고 우리 교회가 Love Modesto를 본따서 Love Milpitas 를 하려고 한다니 대환영이었다.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Milpitas Cares 는 그동안 매년 4월에 Volunteer week이나 Volunteer month를 정하고 지역사회를 섬겨왔는데 우리 교회가 10월에 Volunteer Day를 계획한다니 conflict 없이 서로 도울 수 있다고 했다. Milpitas Cares와 두 개의 중국 교회 Crosspoint 와 Ark Baptist도 함께 하기로 했다. Milpitas Cares 대표 목사 Dan Griffiths 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었고 지금은 은퇴한 목사님이다. 그는 이 지역 사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Milpitas 시장 Mrs. Carmen Montano와 School District Superintendent인 Mrs. Cheryl Jordan도 소개시켜 주었고, 경찰서장과 소방서 Chief들과의 미팅도 주선해 주었다. 올해 Volunteer Day 에 했던 project들이 Dan Griffiths 목사의 이러한 소개로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시작

School District Superintendent인 Cheryl Jordan과 만나고 두 개의 초등학교의 (Curtner and Randall) 교장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벽 페인트, 벽화, 가든청소, book exchange box 등의 프로젝트들이 세워졌다. 시장을 만나고 시청의 Volunteer Coordinator 직원 Ruby General을 통해서 공원들을 청소와 City Community Center 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벤치를 repaint 하는 프로젝트도 세워졌다. Milpitas Police and Fire Chiefs 들과 만나서는 Milpitas 시 세 곳에 있는 Emergency Supply Container들을 repaint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Emergency Notification Card들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rk Baptist Church 는 Burnett Elementary School 을 지정해서 몇 해 째 자원봉사로 도와주고 있었는데 올해에도 Love Milpitas 에 조인해서 그 학교에 학생들이 꽃과 식물을 심을 수있는 garden box 들을 만들었다.

Volunteer Day

이런 project 들을 세우고 Love Milpitas website 에 9개의 projects 기입하기까지 거의 일 년 동안을 Love Milpitas 팀이 일을 해 왔다. 이제는 Volunteer 들이 website에 가서 등록을 하고 작업을 하는 일이 남았을 때에 과연 필요한 인원들이 채워질 수 있을지 앞이 조금 캄캄해오는 느낌을 받았다. 각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고 volunteer 들을 인솔해서 작업을 할 project leader들도 필요했다. 특히 한 초등학교에서 벽화 Mural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왜 할 수있다고 대답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니 아찔하다.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셨다. 우리 교회 교인들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셨다. 필요에 맞는 project leader 들을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Milpitas Cares 를 통해 나누어 준 광고를 보고 등록도 했고 Ark Baptist Church에서도 많이 등록해서 하나님은 Love Milpitas project 장소들을 주님의 일꾼들의 손길로 채워 주었다. 랠리 행사에 목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 군데서 도와주셨다. 감사합니다. Volunteer 여러분, 감사합니다. project leaders, 감사합니다. 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뉴비전 人

푸른 감람나무 우진호 집사

취재, 글 | 배난모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시51:6)

3부 예배 후 쉼터 로뎀에서 목장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는 우진호 집사님을 만났다.

민음381 목장의 어르신들은 “이 분 인터뷰 하세요. 김 목사님 장인이시잖아.” 하셨다. “저도 알지요.” 하고 의향을 여쭙었더니 대번에 손사래를 치셨다. 김성호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하실 겁니다.”하시는 것이다.

때마침 약속이나 한듯이 그자리를 지나가시던 장인어른께 “아버님. 뉴비전호를 위해 잠시 살아오신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대요.” 하시면서 바로 약속을 잡아주셨다. 마음 속 심정은 어떠했을지 몰라도 사위의 부드러운 청을 고집 없이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평소 집사님의 온화한 성품을 넉넉 짐작할 수 있었다.

김지원 사모님의 부친이신 우진호 집사님은 백살을 바라본다는 망백(望百)을 넘어 올해 92세가 되셨다.

이후 인터뷰 내용을 1인칭 시점으로 구성하였다.

9남매의 넷째로 대구에서 태어나서 미국 자본의 전자회사에 근무하다 은퇴하고 자녀 초청으로 아내와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천주교에서 교리문답 시험도 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미국에 온 이후로는 사위가 목사로서 있는 산호세제일침례교회에 꿈쩍없이 출석할 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다니게 된 교회이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생활이 답답하고 고통이 심했을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깊지 않은 신앙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큰 위안이 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할 따름이다.



생각해 보면 시력이 안 좋아져 녹내장 수술한 것 외에는 청력도 좋고 나이에 비해 병원 신세를 크게 진 적이 없다. 어쩌면 이렇게 노년에 건강한 것은 젊은 시절 아주 많이 걸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광복 후 한국전쟁 초기,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여하간 굉장히 고생을 했다. 의용군 시절 얼마나 걸었는지 말도 못한다. 의용군은 6.25전쟁 기간 중 북한 정규군을 지원하기 위해 모집된 군대이다. 당시 북한의 조직적인 선전을 통해 남한에서도 의용군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많았다. 서울에서 유학하다가 사회주의에 매료되어 자원했지만 견디지 못하고 전쟁 막바지에는 탈출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지를 발휘한 덕에 의용군에서 결국 탈출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대대본부가 소백산 산자락을 줄 맞춰서 행군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완전군장을 맨 채로 제일 앞으로 뛰어나가 담배밭 쪽으로 빠져 웅크려 앉았다. 행군은 대열을 이뤄서 줄 맞추어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하고 지휘관의 휴식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개인 행동이 제한된다. 그런데 그 대열 앞으로 잽싸게 뛰어나가 옆으로 빠져 쭈그려 앉자, 다들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길에서 저만치 벗어난 풀숲에 앉은 나를 지나쳐 행군해 갔다. 만약 행군 도중에 뒤로 내뺐더라면 얼마 가지 않아 냉큼 잡혔으리라. 하지만 내가 앞으로 뛰어나는 것을 모두 봤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지나갔고, 행군 대열이 다 지나간 후 냅다 뒤로 달아날 수 있었다.

이후 공군으로 입대하여 한국군으로도 복무를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재미있다. 휴전이 되기 전에 입대하였기 때문에 6.25 참전 용사까지 되었으니 말이다. 인민군으로 국군으로 전쟁의 양편에서 싸우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고비고비마다 충분히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 밖에. 돌이켜보면 크리스천이 아니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펍 행복한 삶을 살았다.

아내는 일찍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이제 손자 손녀도 다 컸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니 짧지 않은 내 삶이 감사할 따름이다. 왜 여식 하나만 두었냐고 묻는 사람들이 이따금 있지만 아내는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캠페인에 앞장섰던 신여성이었다. 딸 하나 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커녕, 교육자 집안의 딸이었던 아내는 딸하나를 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거다. 나또한 평생 후회는 전혀 없다.

하나뿐인 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없는 집안에서 자라 목회자의 사모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당사자가 좋다고 하는데 부모가 고집부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 아내와 나는 쉽게 승낙했다. 지금은 사위가 목사로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

일상은 여느 노인들과 다를 바 없이 비교적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편이다. 아침에는 오트밀, 토마토, 달걀 같은 가벼운 식사와 커피 한 잔을 하고 주말을 빼고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하러 집에 간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는 내면소통을 하기도 한다. 집에서는 인터넷으로 흥미있는 기사를 찾아 읽으면서 소소한 일상을 보낸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 식구들과 설교 말씀에 대해 나누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이 적음을 용서해 달라고,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교인으로서 서로 용서하고 양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조용히 기도한다. 손주들 부딪히는 여건 속에서도 순전히 해결되기를, 결혼을 앞둔 아이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기도한다. 설교 전하는 목회자님들 거짓말하지 않고 교회 화합에 힘쓰기를 기도한다. 과거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간혹 보았다. 손을 따끔 때려주고 싶은 정도이다. 우리 이진수 목사님은 착하고 점잖아 양반이다. 우리 교회가 있어 고맙고 이진수 목사님께 고맙다.

이제는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따금 한다. 그렇다고 죽음에 대한 생각에 침체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딸 부부와 손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신앙심도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해 내 손으로 다섯 손주를 다 키웠어도 늘 미안한 마음만 한가득이다. 또한 천국에 가서 만날 처에게 함께 한 세월 고맙고 미안했노라고 담담히 말해줄 생각이다. 젊은 시절 술도 많이 마시고 정신적으로 애를 많이 먹었다고 늦은 용서를 구할테다.

마지막으로 늘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내 딸한테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건강해야 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아이들 착하게 잘 키웠다. 이제 나는 신경쓰지 말고 네 몸을 돌보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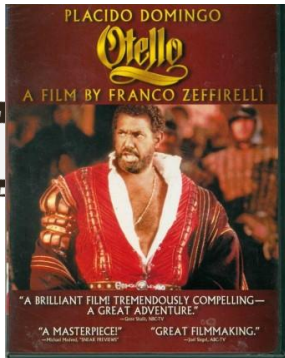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시52:8)



오셀로 Otello

글 | 안재규



시영작전 53

오셀로

오셀로
일리아 셰익스피어 1609년

감독: 프랑코 제피렐리 Franco Zeffirelli

제작: 1986, 미국

상영시간: 123분

장르: 오페라/드라마(비극)

출연: 플라치도 도밍고 Placido Domingo (오셀로 역)

카티아 리키아렐리 Katia Ricciarelli (데스데모나 역)

주스티노 디아즈 Justino Diaz (이아고 역)

우르바노 바로베리니 Urbano Barberini 캐시오 역)

음악은 로린마젤(Lorin Maazel)이 지휘하는

라 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맡았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Otello” (희곡의 줄거리)

아프리카 출신 흑인 오셀로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지만 전쟁터에서 자라며 얻은 용맹함과 리더십으로 베네치아 최고의 장군이 되고 귀족의 딸이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백인 데스데모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인사회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성장한 오셀로의 가슴에는 열등감이 깊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오셀로를 시기하고 경멸하는 이아고는 캐시오에게 부관자리를 빼기게 되자 복수의 뜻을 품습니다. 오셀로의 잠재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아내인 데스데모나가 젊은 장교인 캐시오와 밀회를 하고 있다고 모함을 하여 오셀로를 질투의 화신으로 만듭니다. 그녀의 손수건을 정표로 준 것처럼 음모를 꾸며 사랑하는 아내의 정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잠들어있는 아내에게 입을 맞추고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맙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아고의 모든 음모가 드러나자 단검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숨을 거둡니다. 오셀로가 자살한 후 복수를 천명한 캐시오가 이아고를 재판에 넘겨 고문하라고 지시하면서 극은 끝납니다. 판본에 따라선 이아고가 고문당하고 처형 당하는 판본도 있습니다.



책과 영화를 통한 나의 작은 생각

1986년 극장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오셀로>가 영화로 만들어져 상영되었습니다. 감독은 프랑코 제피렐리입니다. 중학생 시절 저의 책받침의 모델이었던 올리비아 핫세이 출연한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감독입니다. 본 오페라

영화에서는 금세기 최고의 테너 중의 한사람인 플라치도 도밍고의 표정 연기만 가지고도 찬사를 받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고의 오셀로를 불러줍니다. 피날레에서 데스데모나를 살해하는 장면과 자신을 단검으로 찌르고, 쓰러져있는 아내에게 기어가 입을 맞추는 장면을 오페라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기도 합니다. 비극의 아름다움 그리고 드라마의 진한 감동을 셰익스피어와 베르디가 보장하는 최고의 오페라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오, 주인이시여, 질투를 조심하십시오
질투는 사람의 마음을 농락하며 먹이로 삼는 녹색 눈을 한 괴물이니까요”
(이아고, 3막3장)*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겪는 비극은 전적으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공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채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인간존재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은 영혼의 결핍과 공허로부터 오는 온갖 두려움과 허무함을 욕망을 통해 채우려 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니고 있는 모든 비극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오셀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아픈 희곡입니다. 무어인(흑인)으로 전쟁에서의 혁혁한 공을 세워 장군이 된 오셀로는 아름다운 귀족의 백인 여인 데스데모나와 사랑으로 결혼에 이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사랑은 열등감에서 시작해서 어리석은 의심과 질투로 처절하게 비극으로 마치고 맙니다. 열등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간 오셀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한 그를 시기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과 추론을 어느 때보다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셀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완전하지 못한 사고체계가 가져다주는 의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 의심으로 생기는 질투와 비교의식으로 인해 부부, 부모와 자녀, 친구,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도록 사탄은 끊임있게 유혹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주위 상황들을 신중하게 살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며, 어리석은 의심과 질투와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성하여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16:23)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살전 2:1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SOLI DEO GLORIA! 청년사마리탄 안재규목사

설교 톺아보기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2024 새해 특별 기도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 말씀: 이진수 담임목사

| 2024.1.2(화) 믿음의 없이는 (히브리서 11:6)

□1.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는 것은 하나님의 ()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 2024.1.3(수) 예배하는 3가지 모습(출애굽기 33:9-11)

□2. 하나님을()하며 예배하는 모습, 주님과 ()하며 예배 가운데 늘 있는 모습, 예배가 우리 삶이 되고 우리 삶이 주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2024 봄 부흥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인생> - 말씀: 김용훈 목사 (열린문 장로교회)

| 2024.3.8(금)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 (시편 1:1-6)

□3. 코람데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4.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

| 2024.3.10(일) 광야를 지날때 (출애굽기 15:22-27)

□5.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성경적인 구원관, 성경적인 축복관, 성경적인 ()이 있어야 합니다.

□6. 욕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주께 대하여 ()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2024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구원의 주, 예수> - 말씀: 이진수 담임목사

| 2024.3.25(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3-26)

□7. 예수님 따라가는 그 (),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정답> 1.믿는, 존재 2.경외, 친밀 3.하나님 앞에서 산다 4.다윗 5. 고난관 6.귀, 눈 7.길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Live! 2024 사역 박람회





뉴비전교회

New Vision Church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 office@newvisionchurch.org

뉴비전교회 | www.newvisionchurch.org

대학청년부 | www.nvc-iworship.com

고 등 부 | www.youthlighthouse.org

중 등 부 | www.lighthousejr.org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Building God's People to Transform the World

주일예배 | Sunday Worship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15 am	본당
4부 청년 열린예배	1:15 pm	본당
Oasis영어대학부예배	1:30 pm	교육관 Vision Chapel
영아부 (0-2세)	9:30 am & 11:15 am	본관 Little Lamb Garden
유치부 (3-5세)	9:30 am & 11:15 am	교육관 Noah's Ark
유초등부 (1-5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Wisdom Chapel
중등부 (6-8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Vision Chapel
고등부 (9-12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Lighthouse Chapel

* 2, 3부 어린이와 중고등부의 예배 시간은 어른들과 동일하며 예배 후 어린이와 중고등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1부 예배시에는 어린이와 중고등부의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주중모임 | Weekly Schedule

매일 새벽기도회	5:30 am	본당 (토요일 6:30 am, 주일은 쉼)
화요 여성예배(향수)	10:00 am	Pathway Chapel
수요 저녁예배	7:30 pm	본당
수요 말씀축제	7:30 pm	본당 (매월 첫 수요일)
금요 한국학교	4:30 pm	교육관 각 교실
금요 뉴비전성경학교	7:30 pm	본관 각 교실
금요 고등부 모임	7:30 pm	Lighthouse Chapel
금요 중등부 모임	7:30 pm	Vision Chapel
금요 어와나(AWANA)	7:30 pm	Noah's Ark, New Song Chapel
토요 노아학교	9:30 am	본관 및 교육관 각 교실
열린학교	주중 클래스별로	본관 및 교육관 각 교실

* Pathway Bible Church는 다민족 교회를 지향하는 자매 교회입니다.
주일 오전 9:30분과 11:15분에 Pathway Chapel에서 예배 드립니다.
Pastor Bob Lee www.pathwaybible.org



뉴비전교회 웹사이트



뉴비전교회 후보



www.facebook.com/NewVisionChurch1

